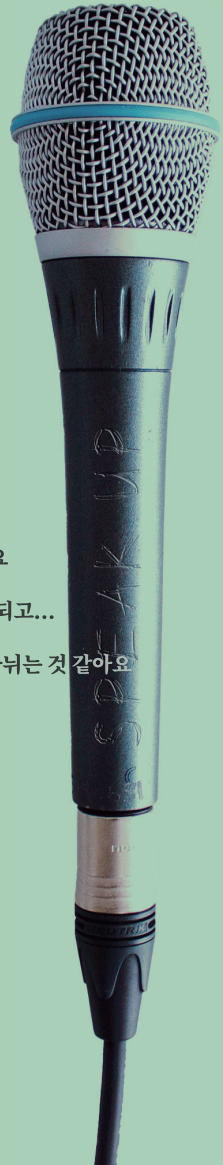


전라북도 학생인권 인터뷰 기록집

기억하는 우리, 학생인권을 말하다

이 선생님은 그냥 내내 그랬겠구나, 매년 그랬나 보다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가능성을 확대하는구나
니들이 오기 전부터 원래 그랬던 학교다
이런 곳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사용을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앞에 달려 같은 걸로 가려져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 들어와 있을 때 서 있으면 안 되고...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와 하고 있는 일이 아예 없는 친구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선생님들이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 없었으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름다운재단

인사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단히 깨어있고자 합니다. 어쨌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깨어있고자 합니다. 인권을 외치는 것도 깨어있고자 하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 깨어있고자 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깨어있고자 하는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깨어있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성찰하고, 활동하고, 연대했던 결실로서 인권의 약속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만을 운택하게 하는 것은 아닌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은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저 아래 고여 있고 잠들어 있는 다른 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귀한 물입니다. 새로운 물들을 품어 올리는 소중한 물입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지해야 하고, 다른 이의 조력과 지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권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에서 함께 살피고 보듬는데 더 많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따뜻한 연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의 운동이 희망이라는 생각, 우리가 고민하고 놓지 않았던 가치들을 구체화하려는 깨어있음으로서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다른 물들을 계속 만나서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는 글

인터뷰를 기획하며

2013년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전북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에도 학교 내 체벌사건을 계기로 2007년부터 원칙적으로 체벌금지 방침을 정했고, 2011년부터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계획 추진을 통해 인권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 보장의 정책들이 명시적으로 추진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도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 및 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 구성을 통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직접 조사 및 구제 활동이 진행되고, 센터의 컨설팅과 학생생활 규정 심의회위원회 운영을 통해 많은 학교의 생활 규정에서 체벌 규정, 휴대전화·용의복장 규제 폐지 등의 일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조례 제정 1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의 인권침해가 백래쉬(반격)로서 나타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해에 지역 내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칙개정 과정 안에서 인권적 관점의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했다. 학교 내 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 개인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은 매우 높은 반면, 일부 교사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은 이를 제재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전히 교사에 의한 체벌 등의 직접적 ‘폭력’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뿌리에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학부모·학교관리자의 인식의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의 과도한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교육계 일각의 잘못된 통념과 주장, 이에 대한 검증은 부재한 채 잘못된 여론을 재생산하는 매체들의 보도도 학생인권의 제도를 공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이 과도하다는 여론의 조성은 교육청의 정책에서 학생인권을 상대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다. 2022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닿아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제도의 기본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음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시한 <2020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83.6%는 조례를 처음 들어 봤거나 이름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73.9%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교사들의 경우 휴대폰 수거, 두발·복장 규제, 체벌 등 인권침해 문제에서 학생보다 낮은 인권감수성을 갖고 있음이 교육청의 실태조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현장에서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직원 단체와 같이 주체들이 조직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이 사회적 의제나 여론으로 조성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청의 인권실태조사가 매년 시행중이더라도 학생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학

생인권 심층조사(질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경험과 영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실을 드러내고 향후 학생인권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인터뷰 사업을 진행했다. 인터뷰이 모집과 인터뷰 진행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다. 조례 제정 전 학생이었던 졸업생들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모두 인터뷰이로 사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만이 아닌 다양한 시·군과 각 급 학교의 졸업생 및 학생들을 인터뷰이로 섭외했다.





인사말		2
여는 글		3
이 선생님은 그냥 내내 그랬겠구나, 매년 그랬나 보다	사담 / 채민 · 김선경	7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가능성을 확대하는구나	케이 / 채민 · 최아현	31
니들이 오기 전부터 원래 이랬던 학교다	경이 / 구파란 · 최아현	51
이런 곳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사용을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경수 / 구파란 · 최아현	65
앞에 달력 같은 걸로 가려져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 들어와 있을 때 서 있으면 안 되고...	건욱 / 채민 · 최아현	77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와 하고 있는 일이 아예 없는 친구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희 / 구파란 · 김선경	103
그냥, 그냥 선생님들이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타 / 채민 · 김선경	119
같이 다니는 친구들 없었으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름 / 구파란 · 김선경	135
닫는 글		
함께 만든 사람들		

사담

졸업생

재학시기 * 2005 - 2016

이 선생님은
그냥
내내 그랬겠구나,

매년
그랬나 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의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초등학교 때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상당히 체벌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고 그나마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제가 중1때였나 그때도 아직 체벌이 좀 성행하고 있긴 했지만 그때부터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체벌 안 한다 체벌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직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체벌이 꽤 있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체벌 거의 금지된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인권 교육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사실 진짜 체벌이 굉장히 흔했던 시기여서요. 제가 1학년 때랑 2학년부턴 6학년까지 다니는 학교가 달라요. 중간에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운이 좋았던 게 선생님이 체벌을 안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체벌을 당한 적이 없었고요, 그나마 2학년 때 전학을 가고부터는 체벌이 굉장히 흔한 학교였는데 준비물 놓고 오면 빗자루로 손바닥 때리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애들이 수업시간에 너무 떠든다 싶으면 바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교실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라 그리고 손들고 있어라 해가지고 그걸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쪽 시켜지기도 하고.

유달리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좀 나이가 드신 남성분이셨어요. 체육 시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다 교실을 나와서 강당으로 이동을 해요. 특히 남자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남자 애 하나가 좀 크게 장난치고 웃었거든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남자 선생님

이 너 이 새끼 나와 하면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때가 2, 3학년이었나 정말 못해도 4학년 그러니까 해봤자 몇 살 되지도 않는 그 날이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어서 강당도 되게 추웠고 근데 그 날에 그 선생님이 한 번 나오라는 말 하자마자 애들이 다 엄청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딱 뺨을 때렸는데 때리니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지겠죠. 진짜 그날 하루 내내 좀 애들이 다 무서워서 잘 수업을 되게 하기 힘들어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 외에도 2학년 때는 제가 실수로 준비물 한 번 못 가져와서 저만 못 가져와가지고 애들 다 교실에 앉아 있는데 여기가 교탁 칠판 여기에 빗자루함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저보고 그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쭉 그려 앉아서 손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끄끄거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네가 개새끼냐’ 이런 얘기를 했어서 그게 살짝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게 기억에 남네요.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그러셨고 그다음에 6학년 때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당구채로 때리셨던 기억이 나요. 손바닥, 손. 근데 사실 위낙 체벌을 많이 당하니까 그쯤 되면 슬슬 맞아도 별로 안 아픈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게요. 초등학교 때는 거의 그랬어요. 거의 진짜 뭐 하나 하면 맞고 뭐 하나 실수하면 혼나고. 아 제가 그 당시에 책상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고 머리를 쥐어박혀가지고. 근데 꿀밤이 너무 아파서 그때 좀 그랬던 기억 그거랑 그냥 체벌이 맞는 거 말고도 수업시간에 남아서 감지 쓰기 이런 것도 진짜 많았고.

중학교 들어와서는 사실 맞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성적이 좋아지고 혼나진 않았거든요. 좀 잘못해도 ‘재는 공부 잘하니까 이 정도는 봐줘야지’ 하는 선생님들 사이 분위기가 적용

이 됐고. 기억이 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직 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기라서 반에서 되게 장난 많이 치고 수업 잘 안 듣고 그런 남자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뭔가 반항하거나 대드는 게 되게 심해서 그 당시에 여자 쌤이 체육부장 쌤인가 남자 선생님 한 분을 불러와가지고. 진짜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운동을 하셔가지고 되게 떡대가 진짜 벌어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남자애한테 너 나오라고 하면서 복도에다가 엎드려 뺨쳐 시키고 진짜 몽둥이로 패지는데 소리가 다 울리는 거예요. 학교에 그때 거의 중학교 1학년 3월이었는데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인권교육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인권 교육이라고 하면 다들 강사분이 오셔서 수업은 해요. 앞에서 tv에다가 자료 화면 띄우시고 수업은 하시는데 사실 거의 다 집중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다들 좀 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친구들은 사실 자는 아이들이 정말 많고 그 수업 자체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사분 떠들고 있는데 그냥 다른 애들은 이렇게 그냥 턱 괴고 있어서 아예 문제집 풀고 있거나 아니면 자거나 핸드폰 하거나 거의 그런 아이들이었고.

이 수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게 강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체벌 금지시켰다고 해봤자 사실 체벌이 금지됐을 뿐이지 벌점 깎는 건 다 똑같거든요. 머리카락 신체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해봤자 결국 등교할 때 교문에서 선생님이 다 잡아요. 엄색도 잡고 교복 치마 길이 잡고 다 하는데 거기 그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말을 하건 간에 학교에서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수업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경우인 듯합니다.

인권 교육을 받아도 학교에서 그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남 얘기스럽고 비현실적이라는 감각은 있죠. 저야 그래도 강사 분 오셨으니까 들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근데 이걸 듣는다고 해서 학교에 뭔가 효용이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들어봤자 사실 학생은 학교에서 결정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학생한테 수업을 해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은 좀 했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학생보다는 교사 쪽 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했던 것 같긴 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곳이 어떤 학교라고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고등학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인문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계속 대학 들어간다는 일념으로 있었으니까. 제가 다녔던 A고는 그런 공립학교였고, 사립 학교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잘 챙겨주는데 그만큼 좀 별로다’, ‘학생들 잘 안 챙겨준다’, ‘성적 순으로 차별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고 그나마 제가 다녔던 A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 공립이니까 그런 게 좀 덜하다 그래서 선택을 했었죠.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숙사를 다녀서 그러는데, 제가 다녔던 기숙사는 거진 성적제여서 진짜 전교 1등부터 딱 30등까지만 이런 식으로 딱 딱 정해진 등수가

중요했던 기숙사였어요. 저도 그 등수 안에 들어서 거기에 기숙사에 들어갔던 거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일단 성적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전교 1등부터 10 몇 등이면 그렇게까지 성적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해봤자 한 문제 세네 개 틀리는 정도. 기숙사 방이 4인1실이었는데 제가 전교 1등 2등이랑 같은 방이 된 거예요. 저랑 그리고 다른 한 명. 애는 저랑 성적이 되게 비슷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1·2등 애들은 사실 공부하느라 정말 방에 그렇게까지 잘 들어오는 아이들도 아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저랑 그나마 좀 친하게 지낸 아이였어요. 사감 선생님이 어느 날 밤인가에 들어와서 ‘야 너희 때문에 시끄럽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방에 안 들어오잖아’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말도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 날은 떠든 적이 없거든요. 둘 다 피곤해서 그냥 빨리 자자 하고 조용히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저희 안 자는데요’라고 말을 하면 안 자고 있는 게 들키잖아요. 안 자도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적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 성적 차별을 이렇게 대놓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심했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근데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은 더 심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과 학교 사이의 기준은 너무 다르다 싶어서 좀 실망했던 감흥이 있네요.

불편하게 남아 있는 거 하나는 복장에 대한 얘기였는데, 애들이 체육 시간 되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사실 운동하고 움직이고 하면 진짜 덥거든요. 그리고 체육복 소재도 그렇게 좋은 소재가 아니라서 그렇게 땀이 막 잘 배출되거나 하지 않아요. 엄청 더운데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수업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되니까 옷 갈아입

을 시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딱 50분 내에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강당에서 교실까지 가는데 3분, 옷 갈아입는데 또 몇 분 걸리고, 화장실 다녀왔다가 자리에 앉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0분이 굉장히 빠빠한 시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분 내에 교복을 못 갈아입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수업 끝났으면 교복 갈아입어야지 왜 안 갈아입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땀 나서 더워 죽겠는데. 교복은 몸에 딱 달라붙는 셔츠 재질 심지어 조끼 입고 마이 입고 스타킹 신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요. 애들이 그래서 한 번 안 갈아입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신 적이 있고.

계다가 에어컨도 잘 안 틀어줘요. 에어컨은 보통 교무실만 엄청 시원하고 학생들은 선풍기 돌려놓고, 근데 선풍기도 잘 안 해줄 때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갈아입기 힘들 수밖에 없죠.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 그런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잘 안 했어요. 사실 겨울에 진짜 춥지 않으면 난방 잘 안 틀어주니까 전기세 때문에 난방을 잘 안 틀어주거든요. 온도도 딱 제한되어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28도, 27도 이런 식으로. 난방도 비슷하게 온도가 제어되어 있고 중앙 제어라 행정실에서 사인을 해줘야만 틀어주기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애들이 맨날 패딩 담요 핫팩 완전 필수였어요. 근데 그렇게 담요 덮고 있으니까 덮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선생님들이.

그런 적이 있고, 선생님이 너희 그렇게 교복 안 입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신고 들어온다. 민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교복을 입는 게 결국 학생들이 입고 싶어서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니까 맞춰 입히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묘했던 게 있는거 같아요.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거창하게 봤다. 이런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가정통신문 나눠주듯이 짬막하게 한 장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끝 그러고 아무도 읽지 않아요. 딱 1학기 첫날에 들어가면 그런 종이를 나눠주긴 하거든요. 나눠주는데 유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안내문들이 막 열몇 장이 되는데 그중에 한 장이니까 이렇게 대충 훑어 보고 끝 계다가 그렇게 한 번 나눠주고 나면 학생이 더 이상 볼 기회가 없어요. 어디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비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모르죠. 진짜 아는 사람만 딱 알고 그 아는 사람도 선생님들 그것도 본인들 편한 거 예를 들어서 교칙 몇 시까지 등교 어디까지 교복 치마는 어디까지 이런 것들만이었으니까요.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구두로 강조했던 건가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교문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너 염색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제. 아니면 그거죠. 그니까 어떤 애가 염색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 등교해서 한번 잡히고, 수업시간 들어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너 염색이 왜 그러냐’, ‘머리카락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려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성 실현의 권리가 지켜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이라고 하면 대부분 검은 머리 길고 차분하고 아니면 단발에다가 치마는 딱 무릎 정도까지 오고 검은 스타킹에 슬리퍼 신고 뭐 담요 덮으면 안 되고 체육복 입으면 안 되고 거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렌즈 끼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근데 저랑 같은 반에 진짜 토종 한국인이었는데 머리가 진짜 밝은 갈색이었던 애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다 염색모인 줄 알고 염색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는 당연히 어이가 없으니까 나는 이거 천연모인데 염색이 아니라고 하니까 집에 증명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증명 받아오라고 이게 정말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으면 존중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반에 진짜 키가 큰 여자 애가 있었어요. 근데 개가 치마를 한 번도 안 줄였거든요. 오히려 치마를 늘려왔어요. 근데도 키가 계속 크니까 치마 길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줄였지 너 너 치마 늘려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복 치마가 비싸거든요. 교복 한 세트에 20 얼마 하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새로 사거나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겨울이라서 진짜 추운데 담요도 덮지 말라는 말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것도 웃겼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 제 친구 제 옆자리에 앉았던 애가 미용을 생각하고 있던 애였어요. 개는 염색하고 으니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고 재는 그쪽으로 간다잖아 그러니까 봐준다 이런 식이었죠.

앞에 스타킹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스타킹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랬죠 검은 스타킹. 살색 커피색 말고 검은색만. 겨울만요. 여름에는 스타킹 없이도 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근데 봄 가을 겨울은 스타킹 착용.

선생님들이 스타킹을 강조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선택지가 그렇게 밖에 없는 거죠. 여자애들 교복은 치마잖아요. 추워요. 일단. 그래서 겨울에 스타킹이라도 안 입으면 진짜 다리가 너무 추운 거예요. 학교에도 바지 교복이 있긴 해요. 근데 일단 바지를 입는 거 자체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고, 체육복도 당연히 싫어하고, 남은 선택지가 결국 스타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울에는 기모를 입는 거고 가을이랑 봄에는 일반 스타킹을 신는데 쉽게 올이 나가고 찢어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죠.

중학교 때는 남녀 공학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도 바지를 입을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바지를 입으면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죠. 치마를 입은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바지를 한 명만 입어도 되게 튀어요. 그래서 좀 더 학생들도 특이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애는 무슨 바지를 입고 다니냐’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한 지적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액세서리 전면 금지 귀걸이 금지 목걸이 금지 팔찌 반지 당연히 안 되고 매니큐어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근데 귀를 뚫고 싶은 애들은 선생님 없을 때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투명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슬쩍 꺼서 좀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정도 그 정도만 했던 것 같네요. (들키면) 압수되죠. 빼라고 하고 가져가고 교무실 오라 그러고 뭐 이거 며칠간 압수라든지 아니면 완전 압수라든지 교무실에서 한 소리 듣고 가져가는 경우는 다행이고 못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고.

휴대전화 이용은 어떠셨을까요?

중학교 때는 핸드폰 가방을 지퍼 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전부 다 번호가 있거든요. 자기 번호에 핸드폰을 넣는 식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반마다 재량 차이는 있었는데 선생님별로 학기 초부터 걷어가는 선생님이 있었고 아니면 수업시간 중에 몇 번 발각되면 그때 걷어간다. 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압수당했죠. 근데 아예 압수하기에는 너무 고가니까 선생님들도 압수했다가 돌려주고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선생님별로 다르죠. ‘너 진짜 이거 오늘 수업 끝나고 가져가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오늘 학교 끝나고 가져가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거 며칠 압수다’ 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게 압수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공기계 내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기계 잡는다고 하나하나 전화번호 다 치고 연락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핸드폰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당황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동 수업 시간이었어요. 친했던 애랑 수업 끝나고 가고 있는데 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제 옆에서 너무 당황해서 핸드폰도 없고 어디 연락할 수도 없고 근데 교무실은 또 너무 멀고 하니까 진짜 여기서 애는 여기 쓰러져 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고 가기에는 애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교무실까지 뛰어가서 선생님 애 쓰러졌어요라고 말을 한 적은 있거든요. 누가 쓰러질 일 자체가 얼마 없기는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좀 그러긴 했는데.

핸드폰 안 내본 적은 없으세요?

네. 당연히 있어요. 그냥 내기 싫어서. 핸드폰을 수업시간에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걸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싫어가지고.

이건 내 물건인데 왜 가져가냐는 마음이셨던 거네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너무 ‘학생들은 교사 말을 따라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고 별로 내 물건을 왜 가져가지라는 의식 자체가 생기기 힘든 환경이지 않나 싶은. 애초에 선생님들이 진짜 눈치를 너무 많이 주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압박하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왜냐면 선생님들 학생들이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생활 태도 점수부터 시작해서 생활 기록부에 적는 것도 선생님이고 무슨 교과 평가도 그렇고 특히 고3인 경우에는 고3 선생님이 진로 상담다 해주는데 거기서 안 좋은 거 티 내봐야 좋을 것도 없고 하니까 애들도 ‘선생님한테 그런 거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하라는 대로 하자’ 하고 숨죽여 지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학생들이 염색이라든지 복장을 지적받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염색이나 복장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이유가 결국 수업 분위기 방해 공부 방해거든요. 근데 공부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해

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뭔가 들뜨게 만든다거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줄 수는 있겠는데 근데 진짜 할 애들은 해요. 별 생각 없는 애들은 별 생각 없어요. 만약에 전부 다 염색이 편한 그런 분위기였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썼겠죠, 제가 뭘 하든. 근데 오히려 안 하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이 더 튀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별점을 주고 별점이 쌓이면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하고 다녔던 애가 있긴 했어요. 근데 개는 그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좀 포기해서 그래서 좀 방치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개가 담임 선생님한테도 되게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염색 좀 그만해라’, ‘수업시간에 즐지 좀 마라’, ‘학교 지각 좀 하지 말고 제대로 나와라’, ‘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살겠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말을 들어왔던 거 치고는 한 번 대화해보니까 너무 잘 맞았고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것뿐이지 딱히 막 남들한테 해를 입히진 않았어요. 개도 선생님들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핸드폰 하거나 대놓고도 안 하고 책상 밑으로 아니면 자거나 거의 그랬어요.

생활 규정을 직접 바꿔보거나 하는 경험은 많지 않으셨겠네요.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학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어설프긴 했는데

데 이번 주는 생활 목표를 이걸로 하자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 잘하자 준비물 잘 챙겨오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한 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와서는 그런 거 없고, 고등학교 되면 더 당연하다시피 공부해야 될 애들이 그런 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아예 폐쇄도 됐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깐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너희 알지’ 이러면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였죠. 그러면 애들도 아니까, ‘그렇지’ 이라고 넘어가고. 학생 그런 실장 부실장이 하는 건 그냥 대학교로 치면 거의 과대 같은 거여서 진짜 알림만 해 주는 용도였던 거예요.

학생회라는 건 사실 인기 투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성적 좋고 성격 좋고 친구 많고 하면 되는 거. 각 후보별로 자기만의 뭔가 공약을 얘기하긴 해요.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근데 애들 사이에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저게 이루어질까? 안 되지.’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고, 실제로 학생회가 당선되고 나서 활동하는 것도 없어요. 거의 생기부 적는 용도. 학생회장 한 번 하고 학생회 활동 하고 끝인 거죠. 사실 학생회라고 할 것도, 거의 선도부 같은 느낌.

고등학교에서는 체벌이 없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체벌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못 한다는 느낌이 있었죠. 선생님들이 좀 너네 예전이었으면 여기서 그냥 후둘겨 맞았을 텐데 고마운 줄 알아라, 옛날이었으면 여기서 얼마나 혼났겠냐 나는 옛날에 선생님한테

얼마나 개같이 쳐 맞았는데 이런 표현 쓰시면서 너희들은 안 그런 게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냐 감사한 줄 알아라 거의 그런 느낌 그런 말들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빗자루로 책상 때리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신다던가, 탁탁탁 이러는 것들은 좀 있었죠.

폭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폭력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염색이나 그런 규칙 같은 거에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내가 당할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 선생님들의 눈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이미 되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너네들 안 맞는 걸 감사히 여겨라라는 것도 진짜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 하지 못했겠죠. 만약에 내가 남남인데 이 사람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 안 때리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학생이니까 ‘너 내가 안 때리는 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 이런 말 하는 게 ‘나는 널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때려주는 거야’라고 하는 거 자체가 나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다 싶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폭언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수업시간에 다른 반 학생한테 ‘너 그렇게 해서 몸 팔아서 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학년 내에 이야기가 짝 퍼졌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기억상 문제를 못 풀었던가 교과서를 놓았던가 할 거예요. 그런 비슷한 강도의 폭언을 학년 내내 계속 하셨어요. 폭언 들은 애들은 다들 엄청 속상해했어요. 그 친구는 울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개네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엄청 뭐라고 한 이후로

는 좀 덜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동안 되게 그 선생님 관련으로 학생들도 쉬쉬하고 선생님들도 되게 조용히 묻고 넘어가려고 그런 식이었는데 결국 그 선생님은 징계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멀쩡히 수업 계속하셨거든요. 그 학년 다 끝까지 마치셨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애들도 다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이미 비슷하게 제기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더라는 일들이 계속 학습되고 쌓이고 쌓이니까 애들도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그래서 솔직히 그 선생님의 그 발언은 사실 수위가 정말 썩고 폭력적이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3 담임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반 애들 입장에서 ‘야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잖아 이 선생님 징계 받으면 우리는 어떡해’ 이런 분위기였다고.

제가 진짜 한동안 그 선생님 이름 듣는 것도 싫어해서 맨날 이름 바꿔 부르고 앞뒤 막 다르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좀 했었지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선생님과 진짜 비슷한 이름을 가진 병원이 있었거든요. 진짜 맨날 그거 볼 때마다 기분 나빠지고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 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어’ 이런 말들, 경험담들. 그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아 이 선생님은 그냥 내내 그랬겠구나. 매년 그랬다 보다’라는 파악은 할 수 있었죠.

그 선생님 한 분이 유달리 언어 표현이 강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분위기는 공유하고 있었어요. 학년 담임이신 경우도 있고 교과 선생이신 경우도 있었고 네 그건 매년

마다 달라요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과목 교사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교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교사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아요. 가끔 한두 마디씩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조금씩 조금씩 그런 생각이 나 그런 분위기나 말은 있긴 했어요. 그나마 좀 젊은 선생님들 20대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폭력적 위계적인 상황 외에도 벌점 등 처벌이 있었나요?

사회 봉사 그러니까 벌점이 너무 많이 누적돼서 사회 봉사하는 애들이 반성문 써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벌점 깎이는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이미 버린 게 결국 내신으로 들어가니까 등수가 내려가죠. 거기서 이미 좀 벌이 크게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 때는 아예 사이트에서 벌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태도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너 벌점이야 하면서 컴퓨터로 tv에 화면 띄워놓고 사이트를 켜요. 켜서 거기서 어떤 학생 벌점 몇 점 이런 거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의 벌점이 총 몇 점인지도 같이 합산점이 떠요. 고등학교 때는 애초에 태도 점수 20점 이런 식으로 수업 시작하는 첫날 오리엔테이션처럼 얘기하거든요. 시험 성적은 여기서 60점 반영하고 태도 점수 20점 반영하고 나머지 수행평가 20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20점 내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깎이면 알잖아요. 대충 감이 오겠죠. 몇 점 정도 깎였겠구나 깎이겠구나.

다음에 그냥 성적만 연관되는 태도 점수 깎기가 있거든요. 두 개가 다른데 웬만하면 태도 점수를 깎지 별점을 주시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교 당시 교복 문제 이런 건 별점으로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좀 안 좋은 건 태도 점수를 깎고. 태도 점수는 사실 좀 자주 깎이긴 했어요. 태도 점수가 수업시간에 조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졸아도 깎고 수업 집중 안 하면 깎고 준비물 없으면 깎고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내가 성적을 아무리 100점 만점 맞아도 태도 점수가 깎여 있으면 100점이 아니고 99점이 되고 98점이 되고 97점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 편차에 반영이 되고 상위권 애들은 진짜 박터지게 했죠. 태도 점수 깎일까 봐 맨날 전전긍긍하고 좀 조마조마하고.

선생님 임의의 재량대로만 반영이 됐어요. 사실 저는 존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교과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불만 있어?’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내가 다 봤는데 지금 나한테 불만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거기서 그렇다고 아닌데요. 그러면 선생님이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깎이겠구나 하고 넘어간 적은 있죠.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은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구조 자체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당장 대학교만 봐도 학생들이 교수한테 불만 있어도 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점수 깎을까 봐. 대학교는 그나마 덜한데 고등학교는 내가 하나하나 점수 평가되는 게 너무 많고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이거 하나 못해서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애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사실 너무 취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육청에 질

러봤자 해결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학생들은 힘들고 교사 분들이 바뀌든가 아니면 교육청 같은 데서 좀 더 나서주든가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억울해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권이 너무 약하다’, ‘요즘 학생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말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별로 안 와닿거든요. 학생들이 억압받는 게 더 크다고 느껴서. 근데도 선생님들이 되게 좀 그러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선생님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긴 하겠죠. 뭔가 고민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이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미 학생들이 충분히 관리 감독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여기서 뭘 더 하시려고.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사실 좋았던 기억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좋았던 걸 따지기는 불쾌했던 기억들이 더 많아서 좋은 게 많이 묻히는 기분.

동아리 활동도 좋았어요. 인문학 동아리였는데 네 점심시간에 모여서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몇 권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을지라든지 정한다든가 해서 그 책을 항상 기한 내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몇 페이지씩은 읽어봐요. 읽어와서 서로 각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자기는 여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서로 좀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였고 이걸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에 자발적으로 시간 되는 학생들끼리 오전에 나와서 영화 보고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문화생활을 많이 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집에서 공부하라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놀러 다니는 것도 잘 못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던 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착하다’ 스티커 되게 많이 받아서 4학년 때인가 처음 영화관 가봤거든요. 그 후로는 딱히 영화관을 가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화생활이 동떨어져 있었고, 집에 인터넷도 안되고 컴퓨터도 없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와서 인문학 동아리 들어가면서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가 매트릭스 네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기억이 남는 게, 제가 다녔던 동아리는 사실 성적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동아리는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항상 생기부에 적을 만한 동아리를 많이 개설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토론 동아리 영어 동아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완전 자소서에 쓰기 좋은 동아리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인문학 동아리는 그런 정규 동아리가 아니었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동아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선생님들이 되게 아니꼬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감각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3이 되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공부하라고 시키거든요. 몇 시까지 교실에 들어와서 남은 점심시간 공부해라 시켜요. 근데 저는 동아리 때문에 점심 자습 빠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되게 안 좋은 말들 많이 들었는데 그냥 저는 깨끗하게 무시하고 동아리를 갔었죠. 그래서 그런가 동아리 활동이 좋았던 거랑 별개로 선생님들이 안 좋게 봤던 시선들이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개성 실현에 대한 이야기들이런 것들은 사실 눈으로 보이는데 휴식에 대한 건 그렇게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면 애들 태반이 졸고 있거든요. 당연한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아침 8시 40, 50분까지 등교 해 가지고 바로 9시 20분까지 영어 듣기 수업을 했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에 대비한다고 한 건데, 아침에 그거 하고 한 5분인가 10분 정도 쉬고 바로 1교시 들어가고 50분 수업 10분 휴식해서 12시 반 정도의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고 3학년이 12시 반에 먹고 2학년이 40분에 먹고 1학년이 50분에 먹는 식이었어요. 그럼 진짜 시간이 엄청 짧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밥을 먹고 1학년은 밥 먹고 양치하면 거의 시간 끝나고 2학년도 비슷하고 3학년이 그렇게 먹고 가서 또 점심시간에 점심 자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점심 자습이 끝나면 다음 교시가 시작되고, 그렇게 했다가 6, 7교시까지 계속 수업을 해요. 그럼 수업하고 또 8, 9교시 보충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육하시는 거. 그걸 끝나고 나면 야자를 해요. 야자 하면 9시, 10시인데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인데 거기서 학원을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 12시까지 수업 계속 받고 집에 오면 엄청 늦겠죠. 근데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하고 나면 새벽 2, 3시 기본. 그래놓고서 또 아침에 일어나라고 시키니까 너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반이 자고 졸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되게 다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할 권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 저는 기숙사 살 때 기숙사 야자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요 그러면 한 20~30분 정도 준비 시간 주고 바로 기숙사 자습실로 들어가서 12시까지 11시 50분까지 자습을 해요. 그러면 자습 잘하는지 아닌지 사감 선생님이 또 감시하고 출석 부르고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렇게 하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가 자는 거 준비 시간이고요 12시 반 되면 소등하고 자야 돼요 근데 선택이에요. 이게 자는 애들이 있고 안 잘 거면 자습실 가서 공부 그러면 한 2 3시까지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1시에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되게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렇게 해놓고서 다음 날 7시 6시면 기숙사 알람이 울려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또 아침 먹고 또 학교 가고 계속 쉬는 시간 자체가 너무 없고 보장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건강이 진짜 안 좋아져가지고 막 음식 먹기만 해도 탈 나고 거의 뭐 죽만 먹고 다니고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통학 했었거든요.

중학교 전에 제가 한 번도 뭔가 입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입시 공부하면서 너무 뻑뻑하게 이렇게 지내니까 한번 입원한 뒤로는 좀 이렇게 안 돌아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먹어도 바로 그냥 탈하고 입원 막 하고 그러고 고등학교 와서는 더 심해져서 예민한 게 더 좀 그러지 않았나 잠자는 것도 고등학교 와서 되게 수면이 잘 안 지켜져서 엄청 힘들었어요.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애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하루에 잠을 3~4시간밖에 안 자요. 그렇게 3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독하다 독해’ 생각했지만 동시에 ‘저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재는 건강이 괜찮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좀 그랬었죠.

지나갔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학창 시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인권이 그동안 사실 잘 뭐가 안 지켜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던 것 같다, 지금은 졸업하고 나니까 확실히 학교에서 그런 걸 존중을 더 잘 못

받았구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진짜 그냥 단순한 설문조사만 수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되게 힘든 얘기들이라 인터뷰하는 게 맞았고 하는 게 좋았던 것 같다,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선생님은 그냥 내내 그랬구나, 매일 그랬나 보다



케이

졸업생

재학시기 * 2008 - 2019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가능성을
확대하는구나



어떤 학교를 다니셨나요?

초등학교는 그냥 지역에 가장 가까운 데 다녔어가지고 B 초등학교 거기에서 무난하게 학교 생활하면서 지내고 중학교를 우연히 혁신학교를 가게 돼서 그게 C에 있는 D 중학교라는 곳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일반계를 가서 집 근처에 E 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녔어요. 17년도 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20년 초에, 20년 2월 졸업생일 거예요.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일가 친척도 다 C에 계셔서 추석이나 이럴 때도 (다른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는 입학하기 전에 어떤 곳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 다르거나 비슷했던 것이 있을까요?

저희 중학교 졸업할 때 시즌이 되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D 중학교 다니다가 일반 고등학교 가면 다들 적응을 못한대'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학생 수도 애초에 다르고 이러니까 적응 못한댔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의 태도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다르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너희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무거운 분위기에 진짜 이거는 교무실 가기 무섭고 살짝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가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는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사적인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일부러 찾아가서 심심하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애교 부리고 (했는데).

중학교는 어떤 곳이었나요?

단순히 중학교 때는 두발이나 복장 휴대폰 규정이 거의 없었어요. 휴대폰 규정도 그냥 사실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면 선생님이 제재하는 정도 이런 거였고, 두발에 대한 것도 없었고, 화장이나 뭐 이런 것도 제한이 없었고. 복장은 그냥 교복 정도였는데 그거 말고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 정도지 계절에 따라 마이를 입어야 하고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치마는 어느 정도로 하고 이런 건 없어서 자유로웠어요.

한 2, 3학년?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사복을 워낙 많이 입고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냥 교복을 없애주겠다, 그러면 그냥 너네가 원하는 대로 사복을 입게 해줄 수도 있다. 대신에 너희가 교복을 입겠다고 했으면 그 말하고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해서 학생들이 투표를 했었어요. 학생 대의원회 이런 거 해서 대강당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학생들이 80% 이상이 교복을 입겠다고 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와서 교복을 유지는 하겠는데 너희가 입겠다고 했으면 사복은 적어도 입으면 안 되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나 ‘너희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 해라’ 이런 거였고 휴대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교복이 입으라고 하니까, 예뻐서, 입고 싶긴 한데 좀 내 개성도 표현하고 싶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막상 자기들도 투표를 해보니까 교복을 선택하잖아요. 그래도 사복보다는 교복 입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이게 더 낫네’ 이러면서 선택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쨌든 학생들 다수가 교복을 입는 거를 편안해하고 선호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평소에는 불만처럼 ‘사복

입게 해주면 진짜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그러게. 생각보다 교복이 더 편한 점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는 저희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가 다 교복을 입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한다는 생각 안에서 ‘사복 입으면 좋을 텐데’ 이런 논의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교복이 편하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다들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중받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가능성을 확대하는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한테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중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친구들도 보면 장기적인 변화긴 한데, 1학년 때에는 학생 자치 이런 거 얘기하거나 인권 교육 이런 거 하면 지루해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랬던 친구들이 그래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느낌. 교육을 계속하고 계속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토론 활동이나 이런 거 같이 해도 1학년 때는 ‘근데 그게 왜 어때서요?’ 이랬던 친구들이 ‘근데 그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 말고도 다들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 휴대폰 제재가 없었는데, 국어 시간이었나 뭐 그런 시간에 작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있으면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막 딴 짓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건

는 게 맞냐, 근데 그걸 걸으면 또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 이런 논의 주제였고.

저희 팀에서 친구가 ‘근데 우리도 휴대폰 안 걸지만 너도 수업 시간에 휴대폰 하잖아. 이거 방해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가 ‘아니 근데 그거 걸는 건 그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싶었어요. ‘그냥 걸기 싫어’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걸으면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놀랐어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외에 인권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학교는 학교인권조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수업 방식에서나 아니면 활동 참여 활동의 주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토론 활동이나 아니면 발표 활동 이런 것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나 우리들이 학교 안에서 더 주체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선생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네가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펼쳐놓으면, 선생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학생인권 조례가 생기고 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으로는 분리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두발 규제 이런 게 엄청 심했거든요. 여고여서. 친구들이 그게 원래는 그냥 불만이었는데 강의에서 얘기를 해 주신 거

예요. ‘인권 조례를 보면 두발 규제를 하거나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뭔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도 사실 지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의는 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깐 ‘아니 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제한하는 거야? 짜증 나게’ 이랬던 거가 학생인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깐 ‘우리 학교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이거 다 때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인권교육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강의식이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인권 교육이라고 하면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그런 강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학급별로 있었던 게 성교육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인권 교육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은 전교생이 들었던 것 같고요, 기억에는 한 번은 학년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학년별로 들어가도 한 학년에 300명이 넘고, 전체 학년으로 가면 거의 1천 명이 넘는 학생이 들어가는 거라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 뭘 하는지 잘 모르죠.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 있었고.

아마 조항 같은 거 띄워놓고서 같이 막 낭송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존중이 되어야 학생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강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무슨 구호 같은 거를 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읽고 막 이렇게 끝내고. ‘학생인권은 학생이 (지킨다)…’ 이런 것들. 간단하고 좀 유치하다 이러면서도 그냥 따라하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다들 그걸 보고서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애초에 제대로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게 강했어서. 강의에 집중하기 보다 그냥 그 시간에 있어야 되니까 있는 그런 게 강했어서. 끝나고 나서 애들끼리 그냥 ‘끝났다. 뭐 먹지? 점심 뭐 나왔네?’ 이런 느낌.

휴대전화, 용의복장 등 규제가 있었나요?

생활과 관련된 규제 그러니까 복장 규제라든가 휴대폰 걷는 거 이런 것들도 체감을 많이 해서 친구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랑 비교해도 우리 학교가 유독 심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고.

머리 색깔도 갈색도 다양하잖아요. 그 갈색 중에도 진한 갈색만 되고 그런 거, 초반에 1학년 때 입학하고 나면 규제 관련된 것만 거의 한 달을 공지하고 그랬었어요. 종이를 정리를 해서 학교에 부착하고 했었는데 생활 규칙에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때 아마 그냥 ‘이렇게 해오던 거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항상 이걸 했다’ 해서. 치마도 우수 사례 이렇게 해서 학생 몇 명을 선발을 해서 반마다 들어가요. ‘치마가 무릎을 덮어야 되고 지금 보이죠. 밑에 좀 보이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 걸립니다’ 이렇게 하고. 귀걸이도 작은 거라고 해도 다양한데 반짝거리면 안 되고 투명한 귀걸이어야 되고 그것도 볼이 좀 큰 귀걸이면 또 안 되고 이런 것도 많고, 뭘었지? 눈썹 문신. 문신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증 받아야 허락해 주고. 머리 컬도 진짜 지금 말하기가 너무 웃겨서. 컬도 S컬은 안 되고 C컬은 되는데 화려한 C컬은 안 되고. 아니면 갈색은 막 어퍼면 안 되고 햇빛에 비쳤을 때 밝아지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적어서.

생활 규정 자체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의 기준에서 학생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 기준이 반짝거리 는 거하고 화려하게 화장하고 좀 밝은 머리를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다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 게 초반에 그 선생님이 되고 나서 굳어지고. 체육복도 여자애들 반 바지 같은 경우는 치마가 길어서 입어도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금지. 다 금지였어요. 복도에서 담요 두르고 오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선생님 기준에서 나왔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밖에도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세요?

중학교 때는 한번도 학업이나 성적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일상이었다고 해야 되나? 상담도 무조건 상위권 친구들 먼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보충수업 이런 것도 그랬던 것 같고.

학업에 대한 차별 이런 거를 느끼면서 좀 힘들었으나 싶기도 해요. 3학년 때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대학 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욕심은 많았던 학생이었는데, 상위권 친구들처럼 엄청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가고 싶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런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이긴 했는데 고등학교 3학 년 때, 2학년 후반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강 이런 게 열리면 모르는데, 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 회장이니까 어쩌다 이렇게 주워들어서 알게 되면 그게 상위권 애들만 불러서 데려다가 하는 특강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생활기

록부 기록을 위해서 무슨 활동도 만들어서 써주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열었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해주고.

밑에 스터디룸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지정석이 있고. 공식적으로 해 주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자리는 애네가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예를 들면, ‘저 자리는 OO이가 쓰는 자리라서 안 돼. 좀 있으면 올 걸? 5분 뒤면 재 밥 먹고 와서 여기 쓰니까 우리가 쓰면 안 돼’ 이런 거였어요. 그 자리가 그 친구는 편하니까 그냥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또 엄청 챙기고. 뒤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모르고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알 때마다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친구들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다른 친구들도 다들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어요).

정보나 이런 것도 항상 그런 친구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고. 제가 받은 피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보충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라거나 아니면 애초에 가정환경이 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사설 학원을 다닐 수 없다던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공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말만 보충 수업 이지 기숙사에서 20등까지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적으로 잘라서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보충 수업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거는 또 선생님도 학교에서 잘 가르치신다고 하는 선생님들로만 해서 추가로 해주고, 그걸 또 생기부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기숙사에 들어가서 알았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들어갔었나, 2학기 때 들어갔나 해서 한 1년인가 있었던 거 같아요. 1학년 때 아예 모르고 2학년 때도 1학기 때인가까지 모르

다가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보충 수업인데 이래도 되나?’ 애네들은 여기 아니어도 수업 받을 데 많고 혼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고 보통 사설 학원도 다 다녔었거든요? ‘다 그런 친구들인데 애네들을 굳이 이렇게 데려다가 하시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무조건 상위권인 친구들은 상위권 대학에 보내야겠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방해되는 게 없게 해주는 게 목표인 것처럼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독서실 사용할 때 방해하지 마라. 재네 들어가 있는 방에 갈 때 가서 딴 짓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 이럴 때도 많이 말씀하시고.

분위기 차이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선생님 저 지금 오늘 공부하러 밑에 내려가서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가서 공부해’ 이런 분위기면, 그 친구들은 들어갈 때부터 쭈뼛쭈뼛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사회문화 공부하러 하는데 내려가서 저도 공부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나 수업시간에 사회 문화 공부하러 간다고?’ 이런 느낌. 그래서 ‘네, 저 이번에 사회 문화 선택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 가서 해. 그거, 그거 뭐야. 애들 그거 방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당시에는 그냥 ‘공부 잘하니까 다 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겠지’ 했는데 오히려 지나니까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때는 학교의 문화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당연했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을 더 잘하게 해주고 더 지원해주고 이런 문화가 많았어서.

기숙사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셨나요?

사실 공부를 하려고 기숙사에 들어갔던 건데 학생부장 선생님이 사감쌤이었어서 너무 막 부르시고 두 세 시간씩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집도 코앞이라 집에서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학생회랑 관련된 일로 부르시길 않으세요. 그냥 심심하셔서 부르세요. 학생회 관련된 일로 논의를 하려고 부르신 거면 이해가 되는데 2~3시간을 의미 없이 부르셔서.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케이야 일루 와봐’ 이렇게 하셔서 ‘너네 그거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해서 제가 딱 5분 안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회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그냥 얘기를 하세요.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이번에 뭐 회의했는데 회의 내용 보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했더라’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애들 선도부 서던데 뭐 잘하고 있나’ 그런 확인차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걸 굳이 지금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지?’ 하고. 그 달이나 그 주에 특정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부르셔서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체육대회가 이틀이었는데, 기획을 쪽 해가지고 체육대회 첫날을 하고 이틀째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랜덤 계주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첫날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해서 이런저런 활동 섞어서 하는 그런 계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첫날에 했는데 선생님 마음에 좀 안 드셨나 봐요. 갑자기 ‘어떡할 거냐, 수습을 해라’,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느낌대로 표현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 때 그렇게 부르세요. 기분이 뭐 때문에 안 좋으시면 그걸 풀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부르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얘기를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시니까 냅다 불러서 한 2~3 시간을 그 이야기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사소하게 30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내가 쉬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공간에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자치를 담당하고 있어서 뭘 해야 뭘 수 없이 항상 마주쳐야 되는 선생님이셨는데 인격적인 공격이 되게 많으셨어요. 학생들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큰 일이 아닌데 인격적으로 네가 그래서 뭐 그렇다는 둥, 생각을 그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애가 공부만 하니까 성격이 그 모양이라서 친구들이 너를 힘들어 해’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선생님은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하고 나면 다른 데 가서 무슨 소리 들어도 다 견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힘들지 판 데 가서 일해 봐. 이거 다 도움 된다고’ 이러셨는데 그때는 진짜 그런가 싶기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다 핑계고, 그 친구들 어린데 마음에 상처 주시고 스크래치 내고 그러셨던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되게 위축되게 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치를 담당하고 계신데 자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맞고 계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사립이거든요. 사립이라서 선생님 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두려움이 커서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어디 외부에 발설하고 이런 거에 예민하고.

이건 비하인드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기간제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자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가하시잖아요. 강사 평가 이런 거 할 때 저희 학생부장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쓰신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다른 교사들에게 강요한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보시고 부장 선생님께서 앞에서 막 비아냥거리시면서 ‘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강요해요? 누가 그렇게 썼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익명인데도 사실상 다들 누군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결국에 다음 학기에 더 안 계시고 임용 준비하러 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학교에 고발해야지’, ‘문의해야지’, ‘이거를 개선해야지’라는 생각을 다들 못 했던 것 같아요. 실천하기까지는 뭔가 내가 희생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가 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거에서 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애가 이것 때문에 풀땀 흘리면 내 수업에서 이거 듣는 것도 싫고 국어 시간에 받는 것도 싫고 이렇게 되는 분인 거 다들 알다 보니까, 저분한테 안 좋게 찍혀서 다른 데서 불이익을 볼 게 뭐 있나. 앞에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맞추고 이런 분위기.

저희가 또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친하셨어요. 그래서 회장 이런

거 뽑을 때도 비리라고 하기까지 그렇지만... 저는 그 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랑 같이 일할 친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 친구의 어머니랑 친하고 그 친구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멤버 중에. 그 친구도 자기가 될 걸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왜 자기가 없냐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에는 들어오고 막 이런 문화이다보니까 뭔가를 하면...

고등학교 때 학생 부회장 학생회장을 둘 다 했었는데, 제가 회장이 됐을 때였나? 학생부장 선생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인권 조례를 갑자기 읽으라고 하시면서 학생회 애들한테 다 읽으라고 하시고 그러신 적 있었거든요.

2학년 때 무슨 개정됐을 텐데 거기에 원래 없었던 내용이었나? ‘복장이나 두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선도부 내지는 어떠한 그런 학생이 학생을 제지하는 그런 뭐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권고하는 문서가 왔는데 선생님이 보시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걸 지금 다 검토하라고 저희한테 그걸 주셨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랑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없애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걸리지 않게 규제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학생 지원부로 바꿔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선도부 말고 뭐 없냐?’ 이랬는데. 그거 자체를 바꾸실 생각이 애초에 없으시고 물으셨던 것 같긴 해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애초에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문화와 구조였어서, 거기에서 어떤 친구가 ‘근데

선생님, 저는 체육복 그것도 입어도 된다 생각하고요, 그거 편한데. 두발도요, 저희가 굳이 왜 규제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치마도 조금 짧으면 어떡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선생님한테 찍히는 행위였어서.

학생회인데 그렇게 말하면 더 화내셨어요. ‘니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친구들도 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학생회가 그러고 다니니까 지금 학교 규칙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해볼까 하다가도 ‘말하면 바뀌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친구들이 이거에 반대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규칙도 그냥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애기 잘 못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말만 하게 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선도부가 있었거든요. 규제 관련 복장 규제 관련해서 선도부 친구들은 또 그거에 굉장히 또 우월감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학생이 학생 위에 있는 거니까 자부심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선도부고 또 학생의 복장을 내가 규제할 수 있고 뭔가 좀 그걸 잡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선도부라는 거에 프라이드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심검문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어요. 갑자기 한 층을 선도부 애들을 다 모아서 도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층에 이번에 행사가 많아서 1학년 애들이 다 교복 안 입고 체육복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들 가지고 다 명단 적어와라’ 하면 1번부터 들어가서 적어서.

그 생각을 학교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적어도 선도부는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학생이 학생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잡는 친구들과 잡히는 친구들이 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검문을 하듯이 들이닥쳐서 누구를 적어내고 이러는 거 자체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로 느껴졌어서. 친구들도 ‘근데 케이야 이거 안 바뀐냐? 이거 치마 진짜 너무 불편하다’, ‘체육복 입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러면 난감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학생회 친구들도 결국에 모범이 되어야 하면서 학교에서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친구들한테는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 사이에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율하고 맞춰가는 게. 개정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을 때 전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좀 도전을 해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규정이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면서 3년 동안 내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따르고.

기억에 남는 좋은 점도 있으셨어요?

학생회에 있으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C 지역 청소년 학생 연합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학생 자치나 학생인권권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얻거나 아이디어를 얻고 나면 학교 내에서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학생의 날은 11월인가 있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단체에서 알게 돼서 학교 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했던 일들.

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던 거 같아요. ‘옳지 않은 것들을 많이 했어도 그 안에서 옳은 거를 조금 해보려고 노력했었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학생의 날에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우리 학교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점을 종이에다가 써서 전시하는 것도 하고, 학생인권과 관련된 게시물들 아니면 의견이나 사진 이런 것들 게시하는 거 하고, 강당에 모여서 학생인권을 주제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저도 사회를 보면서 학생들한테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있고 오늘이 학생을 위한 그런 날이다’하고. 그걸 기획했던 가장 큰 게 그냥 알리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고 한 번쯤 이번 기회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런 일에 내가 몸 담가보고 생각해 보고 한 번쯤 의견을 내어 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뭔가 주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아가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회가 참여 하나로 나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데 많이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중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더불어서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사람 되었다’고 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대로

만 갔던 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친구들과 하고 이야기해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고등학교 때에도 이런 학생 활동을 이어서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연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서 사회적인 상상들을 하면서 살지 않나, 그게 가장 큰 변화된 점, 발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생 자치가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고 학교의 문화가 있어야 학생들이 원칙에 맞는 규제나 학교의 생활 규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말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말했을 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런데 나에게 불이익은 생길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다들 표현조차 못하고 졸업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 인권 자체가 신장이 되려면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많이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치활동에서도 선생님들 회의하듯이 대의원회 이런 것들이 생활규정에 넣어서 규칙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학생들이 하다 보면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불려서 갑자기 뭐 하라고 하고, 학급 회의하라고 하는 것도 이번 달에는 논의할 게 이게 있으니까 학급에서 회의해서 와라 하면 실장도 귀찮아하지만. 사실 습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그걸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애초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모집하는 데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면 학생들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학기를 마무리할 때 이런 식으로 대위 원회나 학급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게 자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 정책적으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건 우리인데 왜 정책을 만들 때, 교육감을 뽑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서 요즘엔 선거권 하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 적어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교육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은 많잖아요. 전국 교직원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공동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선생님들은 많은데. 근데 정작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애초에 없고, 학생위원회에 뭔가 이런 걸 만들어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들 때나 학교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포괄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을 고려하는 게 지금까지는 계속 적지 않았나. 그래서 더 배려해 주고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입니다. 아

까 그 청소년 단체에서도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고 원탁 토의도 했
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다 결국에는 시도 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좀 할 수 있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주고 해야 되
거든요. 이런 활동을 좀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센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센터를
중점으로 둔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 같이 소통하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경이

중학교 1학년

재학시기 * 2016 - 현재

니들이
오기 전부터
원래 이랬던
학교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4살이고 F에 있는 G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여서 종교 관련해서 수업도 하는 학교예요.

생활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해요. 보통 학교생활 규정 또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있어요. 중학교 오면 다 있다고 하긴 했는데… 뒤에는 상점 별 점 그런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규칙을 점점 알아가는 느낌이었던데요. 처음에 딱 말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체육복을 체육 교시 전과 뒤 시간에만 입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거… 솔직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쌤들이 알게 되면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교복은 그렇게 쓰여 있는 게 세 개인가? 단정하게 입고 그냥 뻘한 것이에요.

단정하게 입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머리는 그냥 반마다 (규칙이)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그런 학교에 글로 있진 않지만 ‘체육 시간 전후에만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 혹은 ‘교실마다 붙어있는 단정하게 입자’ 이런 규칙은 누가 만든 건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예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실에 붙어 있는 것들이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말고 교실이나 학교에서 만든 규칙도 있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만든 게 있긴 한데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저희는 후리스가 (있는데) 지금은 패딩 입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패딩 입기 전

까지는 그거를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입고 다른 걸 입으면 저희 반 같은 거는 아름다운 봉사자라고 청소를 한 번 하는 게 있거든요.

학교 지정 후리스 교복처럼 입는 거네요? 생활복으로 그거 말고 다른 옷을 입으면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규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제안한 상황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인가요?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끼리 의견을 통해서 했고 아름다운 봉사자는 선생님이 이거 하자 해서... 그럼 이름 적히는 것으로...

후리스는 입기 편해요?

아니요. 털도 엄청 많이 먹고 완전 뽀뽀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드라이클리닝 맡길 때까지 패딩 입게 해주고 더 날씨가 추워지면 패딩 입게 해준다고 해요.

불편하면 다른 겉옷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있었겠네요.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잠깐 동안만 입고 있어요.

아름다운봉사는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학생들끼리 얘기해보고 선생님도 제안하는 과정과 방법이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규칙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 같은 걸 만들면 불이익이 있어야 애들이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처벌이라고 해야 되냐?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청소하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다 동의. '선생님 그거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반 담임선생님 시간이에요.

그러면 경이님 생각에도 후리스를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후리스는 그건 진짜 싫긴 한데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
니까...

그래도 3년 입을 건데 좀 더 편한 옷이었으면 좋았겠네요.

후드 집업을 바꿀까 말까를 투표했는데... 이거 교복 업체의 문제
이긴 한데 당시에 샘플로 주는 교복은 재질도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복 업체가 진짜 뭘 저런 걸 냈지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옷
을 내서... 선생님들도 항의를 했나 봐요. 바꿀 수도 있대요.

**후리스 재질이 좋지 않은 거 선생님들도 동의하고, 이제 애써서 그
걸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후리
스를 차라리 자유롭게 착용하자고 제안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해봤는데 ‘그냥 걸옷 뒤집으면 안 되냐, 묻는 거 다
안다 그래도 규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규칙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징계 과정을 만든 것에 가깝네요.
규정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
요. 학교 안에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거나 바뀌거나 하는 다른 경우
를 본 적이 있어요?**

1학년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본적은...

**만약에 경이님이 규칙을 하나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규칙을 만
들고 싶은가요?**

규칙을 만들면 그냥 딱히 이제 만들고 싶은 건 없고 사라져야되

는 잘못 규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복 같은 거 원래 입으면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등교할 때 입어도 상관없고 그냥 말만 그렇지 이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뒀어요.

종교 문제만 빼면 그러면 학교를 왜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잘자잘한 문제는 있긴 한데 그래도 딱 보면 이제 나쁘지 않으니까 ‘완전 이걸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만 빼면 그냥그냥 다른 학교랑 똑같은 괜찮은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신청해 주실 때 종교의 자유 문제와 학내 민주주의 문제를 같이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학내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 의식인지, 학교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상황들 중에 하나를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에서 얘기하다가 반성문 주고 내일까지 싸워라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반성문 쓴 게 한두 번 정도 있어요.

반성문의 분량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써왔는데 다시 써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형식은 대충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씨체 날려 쓰지 말라고…

그렇군요. 종교의 자유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 시간 표에 예배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등교 시간은 대부분 8시 40분 정도인데, 아침 예배는 이제 한 8시 45분에 시작해서 8시 55분 그때쯤 끝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

는 아침 예배하고도 1교시 동안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4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고. 다른 이유 없으면 지각으로 처리가 되는데 세 번 체크가 되면 결과 처리가 돼요. 방송부인 애들 중에 (예배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시간을 이제 애들한테 틀어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1교시 전에 0교시가 있는 셈이네요. 경이님은 종교가 없는 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종교 학교다 보니 경이님이 원해서 가신 학교이신지 궁금해요. 중학교 가기 전에 어떤 곳이라고 들었을까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학교에도 종교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도 수업을 하기 싫어도 참가를 해야 되고 종교로 수행평가 같은 것도 봐요. 사실 형이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일단 형이 다니기도 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 아니어도 중학교 거리가 대부분 비슷해서요. 그리고 형이 학교 매점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 그래서 갔는데 정작 가니까 매점은 없고 종교(수업)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지망으로 지금 학교를 쓰기는 했는데 제가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종교 문제로 많이 어려움 겪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장 좀 좋지 않았던 불쾌했던 경험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 수업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독교에선 ‘신이 인간을 만든 건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라거나 ‘다른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 딱히 저는 믿는 종교도 없긴 했는데 그냥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저런 말을 해도 되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행평가 점수 상관없으니까 수업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 상담하다가 결국 수업 들어가게 됐어요. 상담하는 선생님은 ‘그냥 이것도 하나의 수업이

니가 열심히 해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상담 과정에서 ‘네가 이 학교에 1지망으로 적어서 왔고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거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 종교 수업이나 행사들에서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사실 기독교인 애들도 종교 수업을 잘 안 들어요. 다른 종교인 애들도 그냥 수업은 안 듣고, 그냥 필기만 하는데 점수 받아야 되니까요. 쉬기도 하는데 그냥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종교 수업을 좋아하진 않는데 저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나만 불쾌했었던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점수에는 확실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경이님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학교 밖에 다른 친구들 또는 가족이나 다른 어른들일 수도 있고 학교 바깥의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부모님 정도... 그래서 엄마는 ‘수업 들어가지 말아라,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나눈 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들어가지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러셨을까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나 봐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어느 곳에 전화해서 말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인터뷰를 신청하며 여전히 학교 내 종교의 자유의 문제에

되게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시겠어요.

저는 계속 그래요.

그런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는 규칙 같은 거에 가까운데 이 규칙을 학생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자치활동이나 학급회의 같은 게 있었을까요?

학급회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의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이 종교수업에 대해 항의를 했나 봐요. 형이 제가 종교 수업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형이 그랬는데 개선이 잘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줬어요. 선생님들도 ‘니들이 오기 전부터 원래 그랬던 학교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수업 안 듣고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을 들어가긴 하는데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수업을 내가 굳이 들어야 할까 했죠.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듣고 그냥 있어요. 학교에서 다른 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줬던 것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들어야만 하고 예배야만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선생님들의 반응도 대체로 그런 편이었나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혹시 종교 행사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분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다수가 기독교를 믿어요. 어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

데 그 과목 선생님이 학기 중에 바뀌었는데 선생님 계속 수업에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끝날 때도 그렇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서 ‘종교 언급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도하는 거 말고는 이제 언급을 거의 안 하시죠.

그러게요. 변화가 있었네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어땠어요?

그냥 잘 됐다. 이제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갖고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싶다고 얘기도 해보고, 선생님한테 이런 거는 안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려보긴 했는데, 학교 안의 종교 시간이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수업 시간이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학교를 이쪽으로 왔으면 안 됐긴 한데 그래도 종교 예배 사라지고 아침에 예배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지금은 매일 아침에 예배를 하고 수요일에는 아예 1교시 예배하는 건데 빈도가 줄어들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다른 종교 나 혹은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예배하는 거는 이제 수요일 말고는 다 사라지고 수요일은 일교시 동안 하고… 종교 수업은 있어도 상관없는데 수행평가 점수를 내는 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학교 교육과정에는 종교 수업이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수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종교 수업이 있다는 것만 밝혀져도 되게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사 일정을 한번 뽑아봤어요. 학교에 있는 학사 일정을. 여기에 헌신 예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떤 행사예요?

1교시에 하는 맨날 아침마다 하는 거요. 아침 예배를 헌신 예배 이런 식으로 피피티 만들어서요. 그리고 수요일은 채플이에요.

이게 전부 수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일은 1교시에 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건지 궁금해졌는데 실제 교육 과정이랑 학교에서 공개한 학사 일정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는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한 것 같고요.

제가 헌신예배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고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과 시간 외에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쭙봤어요. 그럼 혹시 학교에서 경진대회 같은 행사는 잘 안 해요?

학교 내에서 행사 같은 거는 종교 관련 안 하고 이제 그냥 행사 같은 거는 가끔씩 그냥 뭐 진행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신앙 도서 감상문 쓰기, 성경 고사대회, 찬송가 축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 고사대회는 1학기 때 제가 참가는 안 했고 성경에 나오는 거 문제 내는 건데 1, 2, 3등에게 문화상품권을 줘요. 그런 약간 시험 같은 거예요. 이런 대회는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하고 아니면 하지 말고...

지금 학교에서 좋았던 경험이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작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오니까 반도 많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원래 안 놀러 다녔는데 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

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인권 인터뷰라는 이름을 보고 참여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나의 인권 혹은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해도 그걸 억누르지 않고... 그러니까 말은 그래도 최소한의 말은 들어줘야 된다고... 선생님이랑 학생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

경이님이 학교에서 많이 느끼셨던 것들이어서 먼저 나왔을 것 같네요. 말하고픈 걸 말하고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적어도 듣는 것들을 학교 안에서 경험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아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고,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한 성교육? 이제 한 3일 동안요. 그것도 진짜 인권 교육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라서 인권교육이라고 느끼셨나요?

첫날에는 완전히 성교육만 했는데 두 번째, 셋째 날도 성교육인데, 내 몸은 내 거...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들이었나 보네요. 3일 동안 했다고 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되었네요?

총 3주 동안 했는데 그때가 종교 시간 빼고 그걸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해주신 거군요?

그래서 종교 수업을 3주 동안 안 들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수업했을 때?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이런 교육했다...

성교육 말고도 혹시 인권 교육 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뭔가 더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재미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얘
기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은 대부분 이제 체육을 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빠지니까 그때 기분도 안 좋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강사들이
와서 2시간 연속을 강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시간도 이
제 길어지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PPT 보여주면서 얘기만 하시는 거에
요? 활동도 가끔씩 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이 이름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인 것 같으세요?

인권에 대해서 학교마다 와서 강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강사님
이 오셔서...

**조례나 센터의 일들을 알고 있었다면 경이님의 학교 생활에 영향
이 있었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심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저
나 제 친구들이 심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이제 한 번씩 추천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일이 이제 드물잖아요. 만약에 인
권 침해를 당했다 하면 또 전화를 해서...**

그러면 경이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전화를 해야 할만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놓고 친구들 앞에서 약간 수치스럽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안 그러긴 하는데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대소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누구나?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은 대답을 못하고... 그걸 누군지 찾았을 때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원래 솔직히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몰래 (처리)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솔직히 다른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정도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으면 권해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혹시 그런 나의 학생으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권리 이런 것들이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알고 있으면 활용은 하겠지만 그래도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이유는 뭡까요?

내가 그런 걸 알고 있어도 갑자기 쌤이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걸 알고 있어도 이제 쌤이 그러면 그 후에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전화를 한다 해도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그때 그 상황에는 이제 바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차이는 없어요.

학교에 와서 친구들 많이 사귀셨으니까 나눌 얘기도 많으실 텐데,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 수도 있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나 학생인권 정책을 만들고 내 일상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제발 이제 다른 입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규칙을 만들지 말고 다른 학생들의 입장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서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수

중학교 3학년

재학시기 * 2014 - 현재

이런 곳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사용을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언제 듣거나 말해 봤나요?

인권을 사회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도 형식적으로만 배워서. 그냥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뺏어가거나 다른 사람 걸 뺏을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배워서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인권 침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몰래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제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그런 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인권 침해라고 느끼셨어요?

계속 선을 넘는다고 느껴지면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장난 삼아라도 이야기를 나눌 만큼 인권을 이해하면서도 왜 나와 먼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진지하게 사과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 뉴스에서나 불법한 단어라서 그렇게 느껴져요.

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인권 침해인지 배운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교육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제대로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창체라고 해서 인권 교육 이런 거 말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따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받았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1학년 때 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경우였는데, PPT로 수업 식으로 하니까 그냥 배우는 느낌? 그리고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그래서 참여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인권교육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냥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학생인권이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두발자유처럼요.

학생인권에 대해서 이런 거가, 두발(규제)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은 진짜 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서. 학생인권 따로가 아니라 인권에 합쳐져서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해서는 학생인권보다는 선생님? 교권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고.

교권을 설명할 때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때 무슨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막 선생님을 보고 비난을 한다거나 선생님 보고 약간 성희롱 이런 걸 한다거나 그런 걸 보여주고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심각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 게 뭐예요?

반에서 이제 남자나 여자애들이 놀잖아요. 같이. 근데 이제 놀다가 어떤 남자애가 ‘뭐 여자가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말투가 장난식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생각이 나요. 좀 놀랐어요. ‘이런 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도 페미니스트를 싫어한다거나, 시선 강간이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시선 강간이나 무고죄 이런 건 남자애들끼리 놀 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약간 거부감이 든다. (그런 단어를) 비꼬는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놀다가 뭐 ‘시선 강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 저 혼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던 애가 ‘여자가 뭘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애여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은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랑 같이 노는 친구들은 다른 데서 놀고 있으니깐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여자 학생도 ‘남자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담임 선생님도 그걸 진심으로 생각을 안 하셔서 제가 ‘애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니까 그냥 ‘뭘 야~’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반응하시고 끝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진지하게 하기에는 되게 좋은 분위기였어서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이 말해도 한번에 바뀌지도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렇게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학교는 이런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학교나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한 적이 있나요?

다른 선생님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못했고 어차피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다른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제 3자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그 교실 안에서 그 얘기를 경수 님도 결국엔 듣게 됐는데 제3자라고 느끼신 거예요?

제가 그 대화에 안 끼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페미니스트를 싫어한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언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페미니스트 얘기가 나오면 ‘페미니스트?’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애초에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딱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국어 수업을 할 때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페미니스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선생님도 자기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페미니스트를 안 좋아하는 애들을 보면 너무 한쪽 성별에 치우쳐서 그 성별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싫어하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남자도 평등하고 여자도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인데, 요즘 뉴스나 영상 보면 너무 한쪽 성별에만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기도 해서. 그 페미니스트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싶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발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거 봤는데, 댓글이 다들 동의하지 않는 느낌이었고 저도 그걸 보고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위를 하다가 어떤 여성분이 옷을 벗어가지고 댓글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건 좀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아니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같이 보고 있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니깐. 저도 거기 있었으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서. 뭘 주장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나 무고죄 등을 비꼬는 것과 같은 말이 사라 지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남녀 갈등 같은 게 심해서 이런 게 좀 바뀌어야 학교의 그런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려면 뭔가 어디선가 접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채널이나 그런 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곳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보다는 다른 데서, 남녀 갈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한테 그래도 일단 학생들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단어들 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영상. ‘남자가 이럴 수도 있고 여자가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영상을 들은 경험은 그 반에 경수님 반이나 학교에 영향을 주 었을까요?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한 3. 영상만 틀어놓고 안 보게 되니까. 본 애들은 그래도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애초에 그 영상을 안 보니까.

학생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학교 교칙이 짱세다, 혹은 짱세지 않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경수님 학교에는 생활규정이
나 교칙이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혹은 반에 붙어 있는 문서 같은 게 있을까요?

전체 교칙은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있을 거고 수업시간에 늦거나 안 들어오면 결과가 되는데 그게 아마 10번 이상 되면 선도가 돼서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알게 됐고. 제가 저희 언니랑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화장도 안 되고 염색이나 파마 이런 것도 안 되고 귀걸이도 안 되고 이랬어요. 언니가 저랑 같이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맨날 이제 막 꺾다 뺐다 뺐다 뺐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갈 때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약간 좀 느슨해진 느낌이 됐어요.

언니 분이랑 몇 살 차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5살.

언니 분이 다닐 때랑 지금이랑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렇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들은 게 있으세요?

두발 자유가 이슈가 돼서 그런 걸 수도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언니 학교에 직접적인 건 없었는데 뉴스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언니 때는 저희보다 덜 자유로워서 염색을 한다거나 화장만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서 봐주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갈색 염색은 되게 많고 아예 탈색을 한다거나 다른 색으로 하는 친구도 몇 명 있어요. 아예 핑크색 이런 걸 해도 돼요.

5년 전이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규정들이 없어지거나 남아 있나요?

저희는 휴대폰을 내야 돼요. 이제 8시 40분까지 등교하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조회를 하고 그때까지 휴대폰 가방 자기 번호에 맞는 곳에 넣어놓으면 그 가방을 들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 놓고, 종례할 때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반의 규칙이 있었는데, 휴대폰을 원래 꺼놓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켜서 소리가 난다거나, 수업시간에 걸리면 명심보감 이런 거 한 장 쓰기 이런 벌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1학년 때부터 무조건 걷는 식으로 했었어요. 다들 솔직히 안 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내는 거죠.

머리카락 외에 교복이나 옷 착용하는 것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회색 바지를 입고 온다거나 아예 교복을 안 입고 온다거나 슬리퍼를 신고 오면 이제 잡혀서 운동장을 돌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셔츠 위에 일반 후리스나 후드티 이런 거 입는 건 돼요.

초등학교 때 명심보감 쓰는 건 반의 규칙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경수님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같이 참여해서 규칙을 직접 만들었거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급 회의라고 해서 회장 부회장이 나와서 했었는데 중학교 와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규칙은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지각하면 나와서 청소. 이 정도만 있지 다른 건 없어요.

명심보감 쓰는 건 인권침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감지라는 체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지. 교복을 며칠 동안 좀 잡고 지각을 하면 남겨서 감지를 쓰게 하겠다고 해서, 지각을 하거나 교복을 제대로 안 입고 온 애들한테 남아서 엄청 조그마한 글씨로 띄어쓰기 없이 쓰게 하는 걸 했었어요. 칸이 나뉘져 있는 종이를 주고 지각했으면 ‘지각하지 않겠습니

다’를 계속 적는다든지, 교복을 안 입으면 ‘교복을 제대로 입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했었어요. 다 쓰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했었어요.

깜지도 그렇고, 휴대전화를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수거하는 것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알고 있었다면 경수님의 학교생활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핸드폰을 안 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걸 들으면 학생들이 먼저 얘기를 할 것 같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듣고 회의 같은 걸 통해서 (개정을) 하는데 또 무작정 그냥 핸드폰을 안 걸으면 몰래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조항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휴대폰 걸리면 일주일 동안 압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 문제 말고도, 경수님과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교복 디자인. 저희가 교복 안 입는 이유가 불편해서인 경우도 많아서, 그거에 대해 재질이나 디자인을 바꿀 것 같아요. 바지가 까칠 까칠한 바지여서 그것도 면바지나 그런 걸로 바꿀 것 같고, 위에 셔츠도 불편해서 후드티나 맨투맨이나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있던 한데 그것도 잘 비쳐서 뿔 덧대 입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재질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건가요?

일단은 선생님께 여쭙보고. 저희가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반티를 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추 입는 옷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단추가 딱히 불편한 것도 아닌

데 왜 이게 금지가 됐어요?’ 몇몇 애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체육 활동을 할 때 불편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근데 단추가 있다고 해서 딱히 저희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왜 안 돼요?’ 계속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 적이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란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희끼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란 의견이 다른 경우였네요. 인권이 침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알려야 한다면 누구에게 알리실 건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일단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해결을 같이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일은 학교에서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일이면 부모님에게 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억울하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잘...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거나 하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까의 ‘무슨 여자애가...’ 하는 말을 경수님이 들었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 같으세요?

그냥 개한테 뭐라고 화를 낼 것 같긴 한데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는 기분이 나뻐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곳에 알려거나 더 항의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에게 얘기한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안 들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인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곳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사용을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이야기할만한 부당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뭔가를 하게 한다거나, 어디 가게 한다거나, 뭔가 빼앗는다가나, 선생님이 세게 때리신다가나. 그럴 때?

감지를 작성한다거나 핸드폰을 등교 시간에 제출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런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으신가요? 왜냐하면 강제로 무언가를 한 거는 맞고 무언가를 빼앗긴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명심보감은 정할 때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그리고 약간 잘못을 하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폰은 제가 말한 건 아예 안 돌려주는 경우에는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학교생활이 나에게 남긴 감정이나 학교생활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즐거운 공간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많이 묻히는 편이에요. 위에서 지시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여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순위가 밀려 있으니까 다같이 얘기를 하는 곳, 다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건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기 * 2011 - 2022

앞에
달력 같은 걸로
가려져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
들어와 있을 때
서 있으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H 고등학교 3학년 건욱입니다.

오늘 인터뷰 앞두고 걱정되셨던 혹시 부분이나 긴장된 부분 또는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인권 관련 인터뷰라고 해서 왔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크게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인터뷰 신청 내용을 보니까 I 지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다녔어요. I에서 계속 살았는데 중학교만 J 지역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다시 I 지역 학교로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학 가서 2, 3학년만 기숙사 썼어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는 계속 썼어요.

알겠습니다. 건욱님이 ‘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이 있어.’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계기 혹은 말해 보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직접 이렇게 입으로 꺼낸 적은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인권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참여해 보셨던 경험 있으셨을까요?

거의 매년 그냥 외부 강사가 오셔서 한 적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영상 틀어주는 걸로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인권 교육 경험이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어떤 작가님이 와주신 적이 있는데 뇌성마비였나?

장애가 있고 소설을 쓰시는 분이 오신 적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외부에서 오셔서 강의해 주신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작가님이랑 들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장애인 인권 관련된 내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린 나이에 장애인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권 교육 외에 다른 인권 교육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문화 인권 교육 같은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렇군요. 지금 얘기해 주셨던 인상적인 교육의 순간들이 초등학교에 조금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인권교육 약간 지루한 시간이었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체험 위주의 활동들은 아니었어서 그때부터는 재밌진 않았으니까. (학생)인권 교육은 외부 강사가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도 비슷하셨을까요? 학교 자체에서 영상 틀어주는 교육으로?

노동권 교육은 외부에서 오신 적 있는데 인권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초,중,고 생활 중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규칙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시게 됐던 게 아까 얘기하셨던 인권 교육 시간에

있어서 아셨을까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공지를 해주셨을까요?

중학교 때 학생회에서 학교 규정 바꾸는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학교생활에서 어떤 제재가 있었나요?

휴대폰 모두 걸었어요. 학교 딱 등교하는 순간부터 기숙사에서도 중학교 때는 기숙사에서도 핸드폰 걸었고.

그 외에 2년 동안에 생활하셨던 중학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비교했을 때 학교생활에 있어서 되게 달랐다는 것은 뭐였을까요?

(전학을 간) 중학교가 전 1학년 때 없었는데 1학년 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1학년 때까지 되게 심했대요. 근데 잡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서 제가 학교 갈 때부터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엄청 제재를 받고 그러진 않았는데,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정말 클렌징 티슈 들고 다니면서 이때 얼굴 닦고 교복도 절대 못 줄이게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화장하지 말라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에 생활하시던 거 보면 화장, 메이크업 하고 있던 친구들도 있었나요?

네. 2학년 때부터는 거의 피어싱도 안 잡고, 염색은 못 했어요.

염색은 완전히 안 됐나요? 머리 전반의 제재가 있었나요?

길이는 상관없었어요.

조심스럽긴 한데 고등학교 때까지 혹시 체벌에 대한 경험은 없었어? 학교에서? 체벌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벌이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요즘 안 때리잖아.' 이렇
긴 한데, 간접 체벌 같은 건 없었을까요?**

중학교 때 복도 나가 서 있기 뭐 이런 건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떠들어서 아니면 수업 집중을 못해서?

4시에 정기 수업이 끝나면 이제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 방과 후 수
업 안 듣고 나가서 놀았다가 걸려서 이렇게 서 있었던 적 있어요.

**계속 일단 그냥 나가서 서 있어 그리고 언제까지 서 있으라는 얘기
는 없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건축님이 직접 경험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수업이긴 했어요. 그때 방과 후여서. 안 하고 싶어
서 나갔다가 수업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서 있었어요.

**방과후 수업이 들어가기 싫으셨던 게 그냥 놀고 싶으셨을까요. 아
니면 수업이 싫어서였을까요?**

그 수업이 저희가 안 듣고 싶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
었어요. 중학교 때는 저희가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중학교가 그냥
시골에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나가서 할 것도 없고 이래서 기숙
사생들은 중학교 때 학교 수업 듣고 방과 후 듣고 야자하고 이게 의
무여서 방과 후 수업을 안 듣고 싶어도 못하고 무조건 신청해서 무
조건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방과후 수업 시간에 뭘 하는 거였어요?

컴퓨터 이런 것도 하고 중국어 수업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정말
교과 수업 같이 보충으로 영어나 국어 이런 거 한 적도 있고. 그거

안 하고 나가서 학원 갔다 오고 싶다 해도 잘 안 빼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지 않았고요?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었어요.

**중학교에서 규정개정을 할 때 어떤 규정을 좀 바꾸려고 하셨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때 이제 교복 위에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채색만 되게 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전혀 안 됐었는데요?

안 됐는데 근데 다 하긴 했죠. 원래는 (규정에서)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검은색이나 회색은 되게 이렇게 바꿨었어요.

애초에 외투 자체를 겨울에 못 입는 게 규정이 있었나요?

색깔 있는 거 안 되게 하는.

**규정개정을 하면서 흰색과 검은색 회색은 된다. 이렇게 바꾸신 건
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채색은 안 예쁘다고 그래도 우리 색깔이 있는 것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없었어요?**

다들 어차피 지킬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때 선도부도 원래 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있었는데 저희 3학년 되면 선도부도 없어지고 그래서 거의 안 잡았어요.

선도부가 없어지게 된 이유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어느 날 없어진 거네요?

원래 선생님들이 고르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을 이렇게 뽑아서 선도부라고 하는 거였는데 3학년 될 때 안 뽑더라고요.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아까 얘기하셨던 중학교 규정개정 때 외투 말고는 염색이나 머리를 자유롭게 하자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염색은 없었던 것 같고 피어싱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당시에 중학교 학생 분들이 제일 바꾸려고 했던 거 외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 라고 했던 거였겠네요. 그때 이제 학생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서 바꿀 수 있어’ 하며 회의를 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선생님이 이런 걸로 회의 한번 해서 너희가 한번 바꿔봐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학생회는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사를 물어볼 때 스티커 설문조사 같은 거 하셨을까요? 거수로 했던 것 같아요.

전체 다 모여서 같이요?

학생회 하면 한 반에 학급 임원이 4명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밤마다 모이고 회장 부회장 이렇게 모여서요.

그때 선생님이 옆에 계셨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냥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시켰네요. 어떤 이유로 없었는지는 얘기를 안 해 주신 거죠?

네. 인권 차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어차피 그리고 벌점이 얼마나 그렇게 큰 효력이 있지도 않았아서.

벌점이 쌓이면 뭔가 벌칙이 되는 어떤 규정이 있긴 했었던 거네요.

네 있긴 했는데 딱히 학생들이 그걸 엄청 어기지도 않았고 그냥 벌점을 1점도 안 받은 학생한테 문화상품권 (선물). 이런 느낌이어서 사라졌어요.

그렇군요. 학교생활 규정을 3년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통 고등학교 입학하거나 학년 초 되면 '너희도 우리 학교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은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완전 편리해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교복도 없었어요. 옷 입는 것도 어떻게 입어도 딱히 뭐라 안 하시고 머리 색깔도 정말 막 노란색인 친구들도 많고 보라색인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셨어요.

편이나 켈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예 신경 안 쓰셨어요.

그러면 수업 중에 선생님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정도만 제재하고 수업 시간 전에 걷거나 혹은 등교후에 수거하는 것도 없었나요?

걷는 건 없었는데 가끔 수업하다 들키면 압수하고.

책상 밑으로 사용할 때 압수하게 되면 그날 수업 끝나고 바로 돌려 주셨나요? 아니면 하루 끝나고 돌려주셨어요?

그게 쌤들마다 다르고 쌤들 기분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근데 보통

늦어도 그날 안에는 주셨어요.

건축님 경험도 괜찮고 혹은 옆에 다른 동료 친구들도 상관없는데 제일 혹시 길게 이렇게 압수됐던 거 본 적 있으셨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그날 하루가 다인 것 같고 기숙사에서는 원칙이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뺏긴 애도 있었고.

기숙사에서 언제 휴대폰을 쓰면 안 돼요?

야자시간이랑 그리고 취침 시간이 넘었는데 방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게 걸리면.

그럼 사감 선생님이 이렇게 문 열고 갑자기 들어와서 '너 지금 핸드폰 한 거야?' 하고 이렇게 가져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핸드폰 자체를 서랍에 넣어 관리하는 거네요. 입학 때부터 꼭 그랬던 거죠? 예.

중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다니셨으니까 H고는 프리하다, 자유롭다 이런 걸 얘기 알고 가셨을까요?

프리하다는 걸 알고 가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프리하더라고요. 중학교가 조금 그런 게 있었어서.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때는 사실 완전히 통제하는 시간이었다가 고등학교와 완전 좀 달라져서.

고등학교에서 처음에 친구들이 학교에 모자 쓰고 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저희는 중학교 때 모자 쓰면 안 됐거든요. 근데 애들 다 모자 쓰고 오는 거 같아 그리고 옷도 원래 교복 입다가 교복 안 입으니까 옷 편하게 입는 것도 처음엔 약간 놀랐어요. 저희 위에서도

터 없어졌어요. 교복이. 고등학교는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지)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악세사리 관련 제재 규정도 없었을까요?

귀 뚫고 이런 것도.

피어싱 하는 다른 친구들이나 학생들도 있고.

네 많았어요.

손톱이나 이런 거 검사하는 것도?

네 네일하고 다니는 애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학교에서 유일하게 통제하는 건 휴대전화 정도였을까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개인의 복장, 두발은 아니지만 꼭 지켜야 했던 것들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좀 제재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것도 있었을까요?

학교 점심시간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는 거를 막았던 기간이 있는데, 원래 안 먹다가 그때 잠깐 막았다가 나중에 풀리고.

막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외출을 하는 게?

안전 때문에 위험하다고. 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덩거나 추울 때 냉난방기 사용 같은 건 괜찮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완전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 외에 학교 안의 규칙을 ‘우리한테 더 필요한 규칙인데 이걸 바꿔야 한다’는 논의를 해보는 것은 학생회에서는 없었을까요? 네.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얘기해주셔도 괜찮고요. 몇 시 기상이었어요?

7시요. 아침조회도 하고.

아침 조회도 있었어요? 조회 때는 뭘 했나요?

중학교 때는 기숙사 건물 안에 대강당실에 앉아서 출석부 부르고. 고등학교는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기숙사 앞에 운동장에 이렇게 서서 선생님이 인원 체크하고 그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그러면 중학교 기숙사 조회 시간에 늦게 나오면 그것도 혹시 예를 들면 벌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제재를 하는 게 있어요?

있었던 것 같고, 벌점보다는 학생이 한 명이 안 나오면 그게 개가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학생들이 그럼 이제 누가 다른 누군가 부르러 가잖아요. 아침에 추운데 밖에 이렇게. 고등학교는 또 밖에 있고 하니깐. 고등학교때는 여학생이면 높은 층이거든요. 거기까지 누가 걸어서 올라가서 다시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겨울에 밖에 막 선배들 다 서 있는데 만약에 1학년이 그러면 욱 좀 먹죠. 기상송 못 듣고 늦잠 잔 거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피해 준 거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이 약간 좀 빨리빨리 못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었겠네요.

그걸 약간 이용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프다고 못 내려오겠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내려오라고.

조회 시간에는 많이 안 좋아서 내려오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여자 선배가 아파서 못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래도 내려오라고 해서 온 적이 있어요.

그 선배가 되게 많이 안 좋아 보였나요?

듣기로는 많이 아팠다고.

조회 시간 어쨌든 무조건 다 참석하는 게 강제였네요.

한 명이라도 안 내려오면 다 안 내려오고 싶어 한다고 무조건 우선 내려오라고...

조회의 기능은 오직 출석 체크였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잡 깨는 용?

기숙사에는 한 방에 몇 명이나 생활했나요?

4명이요.

기숙사 입사 자격이 보통 있잖아요. 입사 자격이 혹시 뭐였죠?

우선 거리기준으로 뽑고 그 다음에는 거리로 안 된 애들은 성적순으로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가장 먼 곳일수록 우선적으로 입사 자격이 있었던 거네요. 혹시 저 친구는 거리가 멀어서 입사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네. 1~2학년까지 됐는데 3학년 때 안 된 친구가 있었어요.

3학년 때는 그럼 성적순이었을까요. 안 되는 게?

원래 정원보다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에 4명을 다 못 채우게 해가지고 줄이면서 지금 원래 4명까지만 거리로 됐는데 두 명으로 줄이면서 거리에서. 그 친구보다 멀리 사는 친구들이 돼가지고. 안 됐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아무래도 버스가 어려울텐데요. 택시.

통학택시가 있으셨구나. 통학택시는 학교에서 비용을 지원해줬나요? 네.

그렇군요. 다른 경험에 대해 질문드려볼게요. 내신 성적을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가셨는데 학교에 다닐 때 수행평가 중에 유독 힘들었던 과제 같은 게 있으셨어요?

어떤 과목 선생님이 2학년 때까지 저희 봐주셨는데 되게 깐깐하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애들이 되게 다 힘들어했어요. 그 수업 듣기 전부터 그 전 시간부터 막 떨려 하고. 선생님 나쁜 분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약간 저희가 세뇌되다시피. 약간 이렇게 그래서 수행평가 할 때 준비할 때도 힘들었고 2학년 때는 2학기 수행평가를 1학기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4개월 동안 한 프로젝트를 그렇게 한 적도 있고 해서 그 선생님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긴장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키세요. 한 명씩 이렇게 골라서 시키는데, 이게 틀리면 그냥 틀리는 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벌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친구들 앞에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수업 시간 내에 규칙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선 핸드폰이 이렇게 나

와 있으면 안 되고 음식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책상) 앞에 달력 같은 걸로 가려져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 들어와 있을 때 서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신경 쓸 것도 많았고 수행평가 할 때도 하나하나 되게 깐깐하게 따지시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많은 걸 바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신경 쓰느라, 어쨌든 다 성적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더 예민했던 것도 있고.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더 궁금해지는데 핸드폰이 나오면 안 되고, 음식이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은 선생님이 학기 초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하신 건가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할래?’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첫날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행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곧장 제지를 당하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이걸 가지고 가시고, 핸드폰은. 음료수 같은 게 있으면 앞에 나와서 먹어 약간 이런 장난식이긴 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앞에 나가서 CF 한번 찍고 가라’, 그럼 앞에 나가서 한 입 먹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았는데 되게 선생님 되게 밝고 유쾌하시고 했는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잖아요.

또 궁금했던 게 벌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벌칙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이런 거

늘 그 벌칙을 해야 했나요?

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틀리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시 시킬게'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랜덤하게 있었네요.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라고 번호 같은 거 부를 때도, 오늘 13일이니까 13번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불릴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떨렸어요. 그래서 그 수업 들을 때마다 긴장되고.

건축님도 걸리신 적 있으셨어요?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않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하면 시간 남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영화 틀어주시고 (수업은) 안 하는데 그 선생님은 놀자고 게임을 시키셨는데 그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놓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그게(게임이) 아니면 수업이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부터 그날 그 프로그램을 담당할 친구를 뽑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조를 짜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무슨 게임을 하고 놀지를 정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되게 깐깐하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때마다 또 벌칙이 있어요. ‘장기 자랑하기’ 이런 건데 제가 한번 그게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기 싫어서 미웠어요. 진짜한 학기를 미웠어요. 그러다 겨울방학까지 미웠다가 결국 제가 그걸 해야 되는 날 학교를 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거 하기 싫어서.

예를 들면 게임의 종류가 뭐였을까요. OX퀴즈 같은 것도 있고 부루마블 같은 게임일까요?

부루마블 같이 보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수업과목이 같은 선생님이었나요? 3년 내내?

3학년때 또 다른 선생님이셨고요. 그분이 다른 학교로 가셔서.

아요. 그 후에 다른 제재 사항이 있거나 이리진 않았었어요? 안 할 때 마다 선생님이 '너 언제 할 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어요?

있을 만하면 꺼내셨어요. 그리고 또 반 친구들도 보고 싶잖아요. 자기 일 아니니까 재밌으니까 얘기 꺼내고. 그러다 선생님도 제 성격을 아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셨죠. 제가 학교 잘 빠진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티가 나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서 빠진 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별 말 안 하시더라고요.

건축님도 '안 하고 싶은 거 절대 안 해.' 이런 느낌으로 버티셨군요.

제가 애들한테 '나 죽어도 안 한다'고 '시켜보라고 나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과학 시간 외에 좀 다르게 힘들거나 학교 생활하실 때 약간 좀 불쾌했던 거 혹시 경험 같은 건 또 있으셨을까요? 딱히?

그럼 다른 영역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건축님은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같은 거 고등학교 때 해본 적 있으세요?

학생회요. 1~2학년 때.

역할이나 직책이 뭐였을까요?

봉사부 관련해서 임원을 했었어요.

봉사부 활동은 약간 학교 안에서의 봉사활동 아니면 밖에서의 봉사활동일까요?

봉사부가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봉사 이런 개념이어서 학생들과 학교생활이나 친목을 위한 활동이었었어요. 학교에서 뭔가를 시키진 않았어요. 학생회가 하는 거는 체육대회랑 축제 정도였는데 2학년 때는 둘 다 없었어가지고 별로 못했고. 2학

년 때는 축제는 학생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고 학생회에서 단체로 하는 행사가 몇 개 있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선생님들이 준비해라 그러면 저희끼리 가서 준비하고.

그럼 그런 행사들을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나요?

네 완전히요. 선생님들은 저희가 기획서 써가고 예산만 써가면 그냥 오케이 하고요.

특별히 제지하시거나 ‘이런 건 하지마라’고 하는 것도 없었나요?

‘하지 마라’도 없었는데 저희한테 주시는 것도 없어서 진짜 저희가 다 했어요. 예산만 정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돈 이거 얼마큼 써야 돼요’ 하면 지원해준다는 개념인가요?

근데 그 예산도 정해져 있잖아요. 한 학기에 학생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럼 그 안에서 그냥 저희끼리.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해보면 좋을 텐데 학생회에서 논의하신게 있는데 학교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처음부터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니까 ‘안 되겠네’ 싶은 건 저희가 안 했어요. 예산이 안 되겠네 싶으면 다른 데서 줄이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1-2학년 두 번 다 (학생회 활동) 하셨으니까 예산이 너무 적었다라고 생각하셨던 적도 있으셨어요?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같은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 같은 것도 있었어요?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장소를 정했어요.

정하면 그건 거의 다 통과되는 방식이었을까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북은 나가 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번 갔거든요. 2학년 때까지? 4번 다 전북(도내에서) 갔어요. 갔던 데 또 가고. 작년에 옆 반이 갔던데 이번에 우리 반이 가고. 이제 3학년 되고 보니까 1-2학년 때 이제 멀리 간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코로나 방역이 완화됐으니까?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럼 건축님은 친구일이랑 당일로만 갔다가 오셨겠네요.

저희 학년은 그랬어요.

코로나 3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어서 그건 되게 많이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박 2일을 한 번도 못 가서 학생들이랑 그게 좀 아쉽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북도내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어디 어디 가는 거는 학생회분들이나 여러분들 학생 분들의 의견이었을까?

선생님이 오늘 자유 시간 줄 테니까 정해 이렇게 하면 장소 정하고 그럼 거기서 뭐 할지 정하고 식당도 저희가 정하고. 근데 이제 한 사람당 얼마 쓸 수 있다. (선생님이) 이런 건 알려주시고.

정할 때는 혹시 회의 시간이 따로 있으셨나요?

학급회의.

학급회의 시간대는 휴대전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검색해서 이렇게 계획 짜시고 이랬군요. 그러면 학급회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선생님이 회의해라고 할 때만 주어지는 거죠?

창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외부 활동이나 다른 강사 분들이 오실 때도 있고, 수업 보충할 때도 있고, 회의할 때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학급 안에서 안건이 생겼거나 해서 회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이 부여될 수도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는데 축제 준비할 때 (회의를) 하고 싶다 하면 선생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그때는 저희가 쓰고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행사 논의를 하거나 체험학습 얘기할 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학급회의 시간 정도면 충분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회는 학교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약간 준비팀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냥 스텝 같이.

학생회 축제할 때 참여도는 어땠어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행사가 있으니까 한다는 수동적인 분위기였을까요?

오랜만이어서 축제가. 그래서 축제 준비도, 학생회 애들 다 하고 싶어서 학생회 온 애들이어서 연습 다 열심히 했고. 축제 올라가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하고 했는데 그때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다들.

아까 건축님 입장에서 3년의 시간 동안 학교 안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긴장되고 싫은 마음이 들었던 시간은 그 교과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 그거와 관련되어서 학교 외부의 다른 분에게 예를 들면 부모님과 얘기해본 적 있으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 너무 깐깐하다 그냥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참아’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예

과목 시간이 제일 긴장되고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힘들었던 약간 시간이셨네요. 그 과목 시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다른 것들은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요. 곧 학교를 졸업하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좋은 경험으로 혹은 즐거웠던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으세요?

반 친구들이랑 체육대회하고 축제 준비시간이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까지 감안했을 때 학교생활에서 그래도 이 권리가 제일 중요했다 또는 우선적으로 필요했다는 권리가 있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평등권.

어떤 점에서 혹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편애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보이잖아요.

편애의 기준이 아무래도 성적일까요?

성적으로 올 때도 있고.

약간 개인의 호불호 약간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보였어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조금.

저 선생님이 저 학생과 나를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느낀 어떤 기준이나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예뻐하는 친구랑 안 예뻐하는 친구랑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들어오는 과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애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애는 만점을 안 주고 그런 게. 그때 중학교 때 예체능 선생님이 그게 유독 심하셔가지고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편애가 컸어요.

점수로까지 연결이 됐었군요. 그렇게 평등권 그러니까 어쨌든 차별 없이 학생들이 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끼셨군요.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이 공지를 해 주셔서 아시게 된 것 같고 조례에 보면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혹시 그 기관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무슨 일을 하는 곳으로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학교에 가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교육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례에 따라서 학교의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냐 아니면 혹시 학생들이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냐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만약에 건축님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관을 아셨다고 한다면, 이런 문의를 해봤겠다 혹은 이용해봤겠다는 게 있을까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런 권리를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특별히 제재된 건 없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이 아예 규칙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만들고 싶은 규칙이 있을까요?

수행평가를 제가 알기론 원래 학교 안에서만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만들고 싶어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끝낼 수 있게. 양과 강도를.

전체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놓고 생각하셨을 때 수행평가 과제에 과도하게 시간이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교 시간 포함해서. 그때 2학년 때 한 수행평가가 제일 길게 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중학교 때도 항상 학교 끝나고 또 나와서 뭐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만들기는 미술이랑 음악 시간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PPT 같은 거 만들고 발표 조사하고. ‘며칠에 발표할 거니까 준비해 와.’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다 집 가서 했죠. 학교 기숙사에서도 하고.

그럼 수행평가 때문이라도 기숙사에서 늦게까지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용 시간 막 끝날 때까지 계셨나요?

중학교는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3학년 기숙사 건물에 있는 야자실이 있고 학교에도 야자실이 따로 있었는데. 3학년 선배들만 기숙사에 있는 야자실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2학년들은 학교건물의 야자실을 써야 되는데 그럼 거긴 12시까지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그냥 그때 되면 나와야 돼서. 그때는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기숙사 안에 야자실이 더 생겨서 1,2,3학년 다 기숙사에 있는 걸 썼었어요.

수행평가 양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좀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 드셨는데 수행평가 중에 이거는 진짜 너무 과했다라고 했던 게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거의 다 그냥 비등비등했던 것 같은데 만들기 할 때 저희 돈으로 사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애들이 맨날 ‘왜 여기다 내 돈 써야 되냐’고 했죠. 우드락과 큰 하드보드지 하나씩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만드는 건데 그럼 이 정도 되는 크기 안에 다양한 만들기를 해서 제출했었어요. 조별과제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과목 시간이에요.

직접 만들고 싶은 혹은 규칙이 있다면 수행평가가 과도한 걸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건욱님은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대학으로 가는데 쪽 돌아봤을 때 학교 안에서 ‘이 문제는 참 여전히 있다. 해결하진 못했지만 이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선생님 눈치 보는 건, 고등학교 때 더 심한 것 같은데 생기부에 적히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싶은 말이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해도 말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기부 때문에, 그게 대입이든 고입이든 연관이 되니까. 건의할 만한 내용이어도 괜히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건욱님의 경우에도 그런 적 있으셨어요? 이걸 건의했으면 했는데 못했던 게 있었을까요?

엄청 세부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엄마가 ‘한번 학교에 전화해 줄까’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전화하면 누구 엄마인지 다 아는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꽤 있어서.

작은 학교여서 그랬을까요?

큰 학교여도 못 할 것 같아요.

학교 혹은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혹은 그때는 말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학교도 상관없고요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도 상관없고요.

학교에 상담실이 있잖아요. 위클래스라고. 근데 그게 선생님들이 항상 그거(상담) 할 때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너만 알고 있는 일이다’ 하는데, 저는 그게 항상 담임선생님한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했던 게. 그 부분은 좀 지켜졌으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담 내용 중에 좀 알리지 않고 싶으셨던 내용도 있으셨던 거죠?

반 친구랑 사이 안 좋고 이런 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고 할 때 고등학교 때도 한번 갔었고 중학교 때도 갔었는데, 항상 담임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괜 찰냐고. 그래서 그때 한두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여기는. 나의 비밀 이 지켜지지 않는구나 하고. 근데 주변 친구들도 보면 다 그거에 동의 를 해요. 거기 가서 말하면 그게 선생님한테 다 들어간다. 그래서 잘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축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냥 속마음으로 그냥 얘기하신 거였나 보네요.

선생님이 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비밀이 지켜진다’고. 했는데 안 지켜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이 있거나 할 때는, 저야 그냥 친구랑 싸운 거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해자 귀까지처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

옆에 달력 같은 걸로 기록을 하면 안 되고, 선생님 들어와 있을 때 서 있으면 안 되고...

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왜 자꾸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기 * 2011 - 2022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와
하고 있는 일이
아예 없는 친구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K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교도 대안학교를 나왔습니다. L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고 신념 같이 삼고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채식할 수 있겠더라고요. 채식을 실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물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했던 것 같아요.

K고는 어떤 곳이었나요?

대안학교이긴 한데 입시 위주의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서 그게 딜레마거든요. 95% 정도는 대학을 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5%는 안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대안교육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러면 입시 교육이 필요하고. 그 사이가 굉장히 상충되고 있어요. 대학을 또 잘 가긴 가요. 잘 가긴 가는데.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풀고 그런게 많고 3학년 때는 진짜 일반 학교랑 별반 다르지 않게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학교가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인지 아니면 대안교육인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획안을 짜서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맞춰나갔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이 잘 되는 편인가요?

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회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거의 모든 거를 다 하고, 교사는 서포트해주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개설을 하셔서 한 16개의 인문학 동아리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주제로 수업을 개설해주세요’ 하면 (진행되는) 1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동아리가 없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요청드리면 수업이 개설돼서 지금도 성평등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한국소개 동아리라든가 그런 게 개설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계속 계시다 보니까 그냥 교무실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K고에서 인권이나 자치에 대한 교육도 경험하셨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1년에만 해도 한 3~4 번씩은 무조건 받았던 것 같은데 인권이라고 해서 어느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권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에서도 인권이랑 연계를 해서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학생인권 자료집 같은 것도 교육에서 받을 수 있었고, 외부에서 강사가 오서가지고 학생인권조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강연

을 했었습니다. 수업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하는 인권 공모전 같은 데 출품하는 게 수업 과제인 것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사회 교과나 환경교과,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데서 주로 했어요. 1학년 때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2, 3학년 때는 노동 인권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흥미를 느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인권 이쪽을... 사실 대안학교에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데 인권을 많이 가르치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었고, 중학교에서 인권을 많이 배운 친구들과 안 배운 친구들이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애들은 계속 아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고 또 모르는 애들은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권이라는 내용이 틀 자체가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3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고에는 생활규정이 있나요?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원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이 40% 이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위원이 안 계셔서 그 자리를 학생위원으로 넘겨서 50%까지도 학생위원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규정개정심의위원인데 규정이 개정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브리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정된 부분에 한해서 알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신입생 환영회 때나 그런 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경우에는 인성안전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규정이 개정됐을 때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여태까지는 해왔어요.

많은 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나 학생부에서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뭐는 하지 마라, 뭐는 어디까지 된다’는 식의 경고가 주를 이루는데, K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신입생 환영회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기숙사 자치회에서, 기숙사는 규정이 아니라 생활 수칙으로 해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 때는 규정을 띄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다 안내를 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기숙사 수칙도 개정된 적이 있나요?

지금도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원래 생활 규정이었는데, 여학생이랑 남학생의 기숙사가 다른데 한 규정 안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생활 규정을 없애고 수칙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원래는) 기숙사 자치회가 학생회 안에 부서 같은 개념으로 있었는데 권력 분립을 해서 학생회, 기숙사 자치회, 동아리연합회 3주체가 총학생회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까지 안 가고 기숙사 자치회에서 생활 수칙을 손댈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정말 상세하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고 남학생 여학생 공통사항이랑 기숙사별 사항으로 나뉘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려면 사생운영위원회라고 기숙사 장들이 발의를 하거나 사생 대의원, 그러니까 학년 대표들이 발의를 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몇 분의 몇 명이 상이 동의를 하면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세 차례 정도 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총학생회가 나뉘고 기숙사 안에서 수칙이 개정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나요? 언제의 일인가요?

작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예요. 기숙사 자치회가 꾸려지고 제가 처음으로 사생장을 맡아서 했는데 수칙이 없다보니까 수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개정을 또 몇 차례 했어요. 총학생회도 제 때 총학생회가 분립이 돼서 예산 같은 것도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런 것부터가 각각의 고민이 많았는데 올해는 안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규정이 한 20쪽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제가 수칙을 꿰뚫고 있어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그 수칙 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게 기억이 나서 굉장히 의미있던 것 같습니다.

학생자치에서 고민되는 점은 없으셨나요?

자치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생회랑 다른 부분이 기숙사는 생활이잖아요. 학교에서 분리 배출이 안 된다면 ‘분리 배출 잘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기숙사는 생활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하고 청소

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하거든요. 사감 선생님은 큰 틀만 봐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생활에 가장 밀접한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표출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때가 있었어서... 제가 (사생장단 활동) 파업을 했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당연한 거였어요. 사생장단을 대표로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제 공약이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였는데, 선출된 대표면 이거를 따르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이렇게 해라' 해도 남학생 기숙사의 특성상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함에 있어서도 한 10분 짧게 하면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안 하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잔소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불만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개선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막 무작정 와 가지고 불만을 막 쏟아내고 가고 이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씻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기숙사니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희는 여자 기숙사랑도 (일정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청소를 맨날 해야 되냐' 그런 불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소도 일주일에 두 번도 해보고 두 번 진짜 완전 대청소로 해보자고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왔고.

제가 대자보 같은 거 붙이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가 발각 뒤집혀져서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 그런 요구가 나왔는지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효과는 안 먹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 밀고 나갔고 38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규칙을 지키겠고 존중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와 하고 있는 일이 아예 없는 친구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는 2개 이상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 하는 친구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가 학생회에 들어 있어서, 부서가 한 5개 되는데 그 안에서도 네 다섯 명씩 필요하니까 어렵잡아도 한 40명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씩은 다 들고 있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고 행사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환경 기념일이면 행사를 준비해서 아침 독서 시간에 전교생이 도서관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사람이 적은 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로는 환경부 부원이었고, 기숙사 자치회는 사생장이었고, 그다음에 동아리연합회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회원이었고 한테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정도로 일이 많고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하면 사실은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몇 친구한테 많은 일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요.

제희님처럼 너무 많은 역할을 가지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고민들도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나요?

공유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당장의 해결책은 많은 친구들이 많은 활동에 참여를 하는 정도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는 계속

과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안 하려는 친구들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하려는 친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이 하자고 친구들을 꼬드겨도 부담을 느끼거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치 외의 영역에서도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K고에도 학생 자치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평등이나 반성폭력과 같은 의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년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이나 반성폭력 그다음에 쿼어 프렌들리한 그런 학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학년은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고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쓰여서 학내에서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성소수자를 향하거나 말 그대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라고 낙인을 하고, 실제로 학교 내에도 성소수자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한다든가, 아웃팅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단순히 이런 활동을 한다 아니면 특정 성별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일 것이다 하는 추측성 표현도 있었고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게 쓰는 것 같은데, 그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짜잘짜잘하게. 다른 학년 간에도 있었고 한데 대부분 1, 2학년이죠.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성평

등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전한 공간 그리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바꿔보기 위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학내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특정 사이트에서 쓰는 게 학교로 유입이 됐었어요. 공용 게시판, 함께 적는 이야기 나누는 게시판이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이라든가 단어가 학교로 유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3학년 학생들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자보도 붙고 그랬거든요. 문제의식을 느낀 게 3학년이어서 대자보를 3학년이 붙였어요. 저희 학교가 층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1, 2학년이 1층을 쓰고 3학년이 2층을 쓰는데 3학년이 1층을 갈 일이 잘 없어요. 2층에서 계속 있고 해서. 근데 1층 게시판에 자꾸 그런 게 붙다 보니까 (대자보를 쓰게 됐어요.) 1, 2학년 사이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공론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조치 같은 거는 별로 없었는데 그거 있었어요. 대자보가 붙었을 때 특정 학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불만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이나 아니면 이런 대안까지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괜히 하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이제는 포기를 하고 한 귀로 흘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숙사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주로 기숙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같은 방을 썼던 친구들 중에는 딱히 그런 애들이 없었는데 복도

를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욕짓거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기숙사에서 혐오표현이 오가면서 양산되고 전달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선생님들의 반응이나 대처 있었나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을) 했는데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친구들이랑 같이 대자보를 붙였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교사회가 개입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안 그렇다면 교사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이 주제로 많은 얘기를 해보진 않았는데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성평등 교육도 같이 들으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깨어있으신 몇몇의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성평등을 양성 평등으로만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많은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야시장 같은 거 할 때도 부스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셔서 (부스에 참여)하셨는데, 교장선생님 붙잡고 퀴즈도 내고 이거 뭐지 아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물품 같은 것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부스나 이런 거 열면 관심 가져주시는 선생님들은 계신 것 같아요.

현재 K고에 성평등 약속문 같은 것이 있나요?

수칙을 만들면서 인권 우호적인 문구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욕이나 혐오 표현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언행을 하지 않고 그런 게 5개 이상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켜지지는 않고 있고요. 수칙을 만들자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한 책 읽기라고 전교생이 다 같이 한 책을 읽고 토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작은 조직에서 성평등 약속 만들기》 책을 냈었는데 아쉽게도 다른 책에 밀려서 선발은 되진 않았어요.

학교 내에 갖춰진 자치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 학교 전체에서 이런 혐오표현이나 성평등의 문제가 이야기된 적이 있나요?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자고는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되진 않았어요.

행사가 몇 개 있었는데요. 동아리의 날이라고 동아리들 부스 차려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도 부스도 만들고 야시장 때도 부스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때 학교 앞에다가 부스 차려놓고 어떤 날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굿즈도 나눠주고 하는 행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에서 성평등교육을 세 번 이수해야 되는데 두 번은 친구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꽤 많이 왔었어요. 15명 정도 함께 교육 듣고 소감도 나누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건 알게 되었어요.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학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들어봤던 것 같고,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저희 생활 규정에 원래는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꽤 있었는데 2021년에 전면 개정을 할 때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전면 개정을 했거든요. 그럴 때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학생인권을 지키는 데. 그래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처음 가보긴 했는데 학생인권교육센터라고 하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인권 보호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 규정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행사나 전라북도 내에서 인권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도 알았는데, 어제 가보니까 너무 외진 데 있더라고요. 외진 데 있어서 버스를 타고도 돌아가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전라북도가 꽤 큰데도 전주에 하나밖에 없는 걸 보면 그래도 시 정도에는 교육청처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접근성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은 접근성 좋은 데 있는데 인권센터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 있기는 하지만 없는 데도 있고 전북이 이런 쪽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아직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L 지역 학생인권조례는 아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그런 부분

이 몇 개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L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래도 전북은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학교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평소에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 인권우호적이고 안전한 학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사실은 자각하고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담론이나 아니면 10대 아니면 미성숙하다는 존재로만 인식을 해서 단순히 이런 자격 같은 걸 박탈하고 그런 게 당연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더 존중을 하고 그런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인권우호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미성숙의 존재로 바라보지 말고 더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학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평등이나 아니면 인권을 최우선의 의제로 두고 더 학교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 교육도 좋지만 학생인권이나 아니면 학교에 수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를 두고 그다음에 더 함께 살아가는 교육 현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와 하고 있는 일이 아예 없는 친구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산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기 * 2011 - 2022

그냥,
그냥 선생님들이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타님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 공동체에서 이런 곳에서 자랐어서 항상 인권이나 사회 문제에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계기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나에게도 인권이 있어’라고 생각했다 기보단 당연하게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생각들이 중학교 되면서 주변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6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M 지역에서 다니셨다고 알고 있어요. 전북과의 분위기 차이가 있나요?

분위기 차이라기보다는 교육감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M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교육감님이 학생회 연합 활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자치 활동이나 학생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학생인권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전라북도에 오니까 없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라북도가 학생인권조례도 있고 조금 더 그런 쪽이 활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M 지역이 더 활발한 걸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회들끼리 모여서 행사도 열어보고 지역 축제에서 학생회 연합끼리 부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전라북도에서는 인권 캠프나 몇 시간씩 모여서 강의를 듣거나 서로 토론하는 활동하고, 학생회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학교와 학교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의 장이나 아니면 어떤 한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 쪽이 많은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K 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학하게 되셨나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급식에 정말 야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3년을 살면 제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진보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사회에서 평소에 요구하는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것에 세뇌 받게 될까 봐 두려워져서 이런 활동들이라도 할 수 있는 K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었어요. 대안학교인데 인가형 대안 학교라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공부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제가 더 원하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아무것도 못 잡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입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대안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라서 오자마자 생각보다 빨리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을 테지만 대안학교치고 대안적인 교육이 너무 없다고 느껴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대안학교는 공동체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많이 없고 학생들도 생각보다 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고 으샤으샤하는 분위기가 아닌 느낌이라서. 그리고 생각보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무지한 부분이 많았어서 놀라고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만족하는 건 저희 학년 친구들과 급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 학년이 K고의 마지막 희망이랄까? 그럴 정도로 친구들이 진짜 꽤나 깨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온 친구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대안교육을 바라보고 K고에 왔지만 실망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학년이 K고를 조금 더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서. 학생회를 하면서 학교 규정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이사장 규탄 시위 했던 거. 그래서 이 안에서도 기대를 해서 오히려 실망을 했지만 실망을 했기에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었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부터 금요일은 아예 채식의 날로 해서 완전 비건 식단으로 아침과 점심이 나오구요, 평소 식단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기가 주로 나오거나 할 때는 조리원분들과 영양사 선생님께서 김이라도 놔주신다거나 아니면 고기 안 먹는 친구들을 위한 다른 음식을 만들어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먹고 있어요. 저는 원래 식사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배고파서 있는 간식을 먹는다던가 저녁 간식을 친구 거를 더 먹는다던가 하는 것 같아요.

비건의 날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알고 계시나요?

학교 동아리에 공장식 축산과 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페스코를 하면서 학교에도 채식에 대한 정보들이 서로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서 그런 이야기들이 1학년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금요일에 집을 갔다가 일요일에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금요일은 아침 점심만 두 끼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식사가 적은 식사 먹는 횟수가 적은 금요일에 채식을 하자고 급식실과도 합의가 이렇게 돼서 교장 쌤이랑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글을 써서 건의하기도 하고 식당에도 권유하기도 하면서 해서 서로 조율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학내에서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학생회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왔을 때는 학생회가 이미 꾸러진 상태였으니까 규정개정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때 생활 규정 중에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정하자,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았어서 그거를 수렴했고 그래서 1학년 때 이야기한 거를 바탕으로 2학년 때 전면 개정을 했어요. 학교 규정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규정이다 보니까 이상한 단어들도 ‘혐오감을 주는’ 이런 단어들도 있어서 전라북도학생인권 조례랑 전라북도에서 컨설팅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면 개정을 해서 인권 침해 요소들, 그러니까 염색 탈색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전자기기만 남겨놓은 채 전면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각 학년별로 학생 위원이 한 명씩 들어가서 각 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와서 회의 때 안내를 하고, 교사위원회 의견 그리고 학부모 위원회에 의견 전달을 했었어요. 2학년 때도 각

학교 구성원의 대표들이 전교생한테 설문조사를 돌려서 의견을 수렴했고 3학년 때는 전자기기 (제출과 관련한 의견을) 주로 받았어요. 그것도 각 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돌리고 전체 투표를 했고. 그리고 발의안이 학교 홈페이지나 각 학교 구성원에게 공지가 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의안을 내면 규정개정위원회 안에서 논의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거를 했었어요. 3학년이 됐을 때는 전자기기 규정을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개정을 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주로 개정을 할지를 두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한 거였어서 전체적인 투표를 많이 받는 의견을 다 수렴한다기 보다는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 조항이 나왔을 때 공청회를 거쳐서 설명을 하고,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학년 때까지는 규정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없어졌기는 했는데, 암묵적으로 남녀 둘이 붙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고, 원래 교복이 없어서 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몸매 라인이 드러나거나 붙는 옷이나 아니면 조금 노출이 심한 옷은 입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암묵적으로 있었는데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어요.

‘혐오감을 주는’이라는 용어는 어떤 맥락으로 들어가있던 거예요?

그게 피어싱이었어요.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피어싱. 문신에도 그게 포함이 되었나? 아무튼 그런 거는 금한다 이런 느낌. 중학교 때부터 용어적으로 가장 황당한 거는 ‘학생다운 옷차림을 가진다’, ‘단정한 옷차림을 가진다’ 이런 게 이해가 안갔어요. ‘학생 다운이 뭐냐’, ‘왜 학생이 단정해야 하냐’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

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학생을 선동하는 자'는 규칙 위반인가, 징계 그런 게 있는데 '선동 한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명확하게 서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장 규탄 시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을 선동한 거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정치 활동이나 자신의 사상을 상대에게 얘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탄압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학교 용어에서 말하는 선동은 그런 선동 느낌이 아니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규탄 시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규정을 가지고 (말)했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위협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네 이걸로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무얼 할 수 있지? 학교도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사회인데, 우리나라의 학교는 기계를 양성하는 공간밖에 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때도 있나요?

사건이나 사례가 크게 있었다기보다는 사소하게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어요. 저희가 기숙사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학교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것들이 학생과 교사가 충돌을 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에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고. 말 그대로 소통이 너무 안 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같아요.

일단 저희 기숙사가 형태도 감옥같이 생겼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약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각 방 문을 열고 자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이 아이들의 행동을 다 볼 수 있게. 기숙사가 네모나게 생겨서 양 옆에 방들이 있는데 다 방문을 열고 사감쌤이 여기서 다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1, 2년 동안 계속 학생총회를 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원래 사감 선생

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불편하고 진짜 일거수일투족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일반고에 있을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각 방에 도어락이 달려 있고 비밀번호는 각 방원들끼리만 알고 있어서 사생활이나 개인의 그게 보장이 되었는데 여기는 죄수가 된 느낌처럼 정말 다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서. 그게 불쾌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취침 시간에도 한번씩 사감 쌤이 문을 열어보시면서 몇 명이 자는지 몇 명이 공부하는지 해서, 한 시가 절대 취침인데 절대 취침 이후에 안 자면 아침 청소라는 벌칙에 들어가고. 사감 쌤이 아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때도 없이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충격인 것 같아요.

사생총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매번 나왔던 게 문 닫고 싶다는 건 의였고 학교 측에서는 ‘문을 닫고 자습을 하면 네명 중에 두명이 떠들면 나머지 두명은 피해를 받는다, 모두가 문을 열면 모두가 조용하니까 문을 열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2학년 때 이거를 우리 안에서 자치로 하게 해달라고 했고 사생장이 기숙사 생활 자치 규정을 한번 바꾸면서 그때 투표를 해서 바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문을 닫는 걸로) 규칙을 바꾸고 대신 사감 쌤이 열어볼 수 있는 조건이 달리게.

학생들이 외부의 개입 없이 규정을 새로 개정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바뀔 것 같으세요?

저는 규정 자체를, 학교생활 규정의 규칙 자체를 없애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안의 약속 같은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과 배려를 지킬 수 있게. 만약에 내년이라고 치면 내

년 2023학년도에 있는 1, 2,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올 한 해 혹은 학기를 어떤 약속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자기기 개정을 할 때도 마지막 조항에다가 학교 생활규정에는 아주 포괄적인 규정만 적어놓고 주기적으로 학교 구성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 다음 회의 전까지의 약속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입학하기도 몇 년 전에 있던 규칙들을 계속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있는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어떤 학교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면서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 나가게 할 것 같아요.

규정이나 규제 외에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꼽아보 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학교보다는 그래도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 몸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년은 깨어 있고 성평등한 학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다른 학년들 안에서 정말 혐오 발언들도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학교 공용 컴퓨터에 혐오 발언과 여성의 성기나 아이들을 성희롱 하는 그런 표현들과 문장들이 쓰여진 검색 기록이 학교 공용 컴퓨터에 떴었어요. 사용 시간대를 봤을 때 1, 2학년 그런 학급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의 시간이었어서 그걸 보고 정말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때부터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학년 친구들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제가 학교에서 많은 성평등과 성소수자

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알리고 했었는데도 이런 실패를 직면하니까 슬펐던 것 같아요.

들려오는 걸로는 기숙사 안에서 1 2학년 아이들이 페미 이런 혐오 발언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여자 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하거나 외모를 평가하거나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고 얼굴 인기 투표나 누구 비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학년 때도 1학년 남자 학생들이 저희 학년 여자 애들한테 급식실에서 성희롱을 자기들끼리 한 줄 알고 했는데 저희 학년 여자 아이가 들어서 좀 문제가 생긴 일도 있고. 1, 2학년 남자 학생들을 보는 게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안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슬펐던 것 같아요.

저희 학년 안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쪽지를 남자 아이들끼리 쓴 거를 그 여학생이 봐버려서 일이 생겼다든가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학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고.

학교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있었나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의 대처가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숙했다기보다는 별 대처가 없었다. 선생님들이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공용 컴퓨터에 검색 기록이 있었다는 건 어떤 사건이었던 거

에요? 산타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체육관에 있는 공용 컴퓨터였는데 거기에서 빔프로젝트를 띄우면 화면으로 송출되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노래를 틀거나 할 때 그 컴퓨터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근데 그걸 발견한 학생들이 추정하기로는 수업시간에 몇 명 애들은 체육하고 몇 명 애들이 거기 앉아서 그거를 치면서 소리를 끄면 그 학생들밖에 화면을 못 보니까 유튜브로 그거를 쳐서 본 걸로 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자애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그걸 쳐서 봤을 거다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검색 기록들을 캡처해서 다 프린트를 해서 학교 벽에다가 붙였어요. 익명으로 해서. 2학년 0반 학급 시간에 이런 체육관에서 이런 검색 기록이 있었다, ‘몇 시부터 몇 시 이 시간대는 몇 학년 몇 반 학급의 체육 시간이다’ 설명과 함께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그 모자이크 처리한 게 어떤 의미였는지 종이에 써서 벽에다 붙였는데 그 학급 담임 선생님이 그걸 다 수거해 가셨어요. 왜 수거해 가셨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떼시면서 ‘이거는 2학년 0반 학급 모욕인데, 모함인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난반 진심반 이렇게. 그것을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말씀하신 그 의미 때문에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거나 1,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진행됐다거나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없어서 쓸쓸했어요. ‘왜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대응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성평등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교육을 와 주시던 강사님이 계세요. 강사님께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한번 강연을 해줄 수 있으시겠냐고 요청을 해서 연말쯤에 강의를 잡아놓긴 했어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리고 지도하고 교육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교사가 문제의식이 이미 있어야 하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파악했을 때 거기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사가 잘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학생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선생님들은 직장 상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보다는 제가 일을 하거나 수행평가를 했을 때 확인과 검사와 평가를 받는 상사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학교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를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무시하거나 넘기거나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가거나 저에게 오히려 악영향이 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서 선생님들이 두려워지고 마주하기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생회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든 학생 자치를 이끌어내보려고 정말 많은 행사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좋

아하셨어요. 저희를 엄청 꾸짖으시고 행사를 오히려 취소하게 하고 그랬어서 많은 배신감과 절망(이 들었어요). 2학년 때 시험 후에 하는 체육대회 행사였는데 그때가 고3 수능 한두 달 전이라서 3학년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갔어요. 체육관을 사용하면 소음이 끼치는 게 괜찮을까 해서 3학년 교실에 양해를 구하러 갔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엄청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안 그래도 수능 직전인데 그런 거를 진행하면 어떡하냐고, 너네도 너네들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을 좀 하라고, 고3을 배려를 좀 하라고 그러면서 엄청 혼내셔서. 오히려 그 이후에 고3 학생들이 저희에게 와서 고3은 별 아무 생각이 없다, 너네가 뭐 하든 상관없다, 선생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려던 거 하라고 해서 작게라도 진행을 했었어요. 연기하고 엄청 축소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3학년으로 올라오고 그 두 분이 그대로 이번 저희 담임 쌤들이신데 정말 대우가 다르시고 오히려 저희한테 학생회 행사 좀 참여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슬펐던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학생자치 활동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이 있던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가워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 너네 고생한다 하고 응원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게 지지를 해주시거나 지원을 해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행사를 준비해가도 선생님들에게 빠꾸를 먹거나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코로나를 빌미로 선생님들이 다 진행을 못하게 하셔서. 가장 의욕이 넘치고 활발했

던 학생회인데 생각보다 많은 걸 하지 못했던, 그래도 많은 걸 했던 그런 고생의 해였어요.

그래도 저희 학생회가 의욕이 넘치는 학생회 친구들이었어서 완전 학생의 규정부터 회칙 학생회 회칙부터 완전 개정을 시작하면서 '전교생이 다 모여서 하는 소통할 수 있는 회의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회장단이 다모임이라고 전교생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대의원회라고 각 학급에 학급 회장 부회장들이 매주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하고 학생회 회의도 매주 두 번씩 진행을 하고, 그렇게 최대한 자치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내에서 해 오신 활동이 지금 좀 싹을 트는 것 같은가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밑에 학년 인원들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리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서. 아예 없애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다모임 같은 거는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하고, 학생들 간의 소통이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든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왔던 시스템과 제도들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는 게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 항상 후회가 많은 사람이라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일을 할 때 스스로 혼자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주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다 떠맡아 가려고 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다면, 더 함께한다면 더 큰 성과와 변화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거 같은 게, 정말 지나오면서는 힘들고 거의 지옥 같았지만 와서 보니 생각보다 남은 게 많구나 싶어요. 3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허무하다는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을 해봤자 정말 이뤄내는 결과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해온 게 많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학교와 관련한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어떤 가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까요?

교육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교육이랑 환경교육과 정치 교육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사가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수업 안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수업하는 게 아예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서. 정치에 대한 것도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처럼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싶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인 학교를 학생들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라는 단어의 뜻 그

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로가 함께 맞춰나가면서 거기에서 잘 안 되면 또 다르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국가와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정말 뿌리채로 바뀌어야지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 지역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K 학교가 있고 일반 학교가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있을 것인데 너무 획일화된 그런 제도를 뿌리지 말고 하나하나 잘 살피가면서 많은 관심을 주면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학년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학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 어렵다면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탈학교 청소년

재학시기 * 2012 - 2022

같이 다니는
친구들 없었으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름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N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학년이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자퇴를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아직은 학생입니다.

N 고등학교는 스스로 원해서 가시게 되었나요? 학교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원해서 갔거든요. 나름 목표가 있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반절 정도는 부모님한테 떠밀려 온 것 같긴 해요. 목표 자체가 사실 제가 완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해서 하셨던 목표라.

애초에 찾아본 게 없어서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완전 별로다’ 이 정도는 아닌데 ‘생각했던 거는 아닌데?’ 이런 느낌. 일단 저희 학교가 전에 썼던 건물을 재활용한 거라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시설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막 입학했을 때 1학년 건물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철거해도 될 정도의 낙후된 시설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쓰고 있었더라고요.

기숙사는 주기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괜찮거든요. 근데 학교 화장실이 많이 열악했어요. 회장 부회장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 화장실 개선 이런 거 항상 나오고 그럴 정도로. 네 개 반에서 쓰는데 화장실이 두 칸이라던가. 그리고 두 칸인데도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쪽 막힐 때도 많고. 특히 오래됐던 1학년 건물이 많아요.

그럼 제일 힘들었던 건 노후화된 시설인가요?

에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뭐라 해야 되지? 모멸감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느낌? 이런 일 아니어도 평소에 뭐라고 해야 되지 막말을 일삼으셨어요. 굳이 저 말고도 저희 반에. 그리고 1학년 학기 초에는 종이 같은 거 쓰고 상담하잖아요. 1:1로. 거기에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쓰라길래 ‘선후배 간 위계질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한 3~40분 동안 따지시면서 네가 선후배 위계질서를 직접 느꼈냐고, 직접 느낀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면서 쓰면 안 된다고 막 몰아가셨거든요. 2시간 동안 그랬어요. 두 시간 동안 날려먹고. 학기 초여가지고 아무래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니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담임선생님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시거든요. 다 괜찮고 되게 친근하시고 그러신데 가끔씩 사건을 내실 때가 있는데 그게 진짜 얼마 전이었어요. 수능 전 주였으니까. 저희 학교도 수능 시험장으로 써서 교실에 있는 짐을 다 비워야 했어요. 원래는 수능 전주 금요일까지 비워야 되는데 담임쌤은 날짜를 착각하셔서 목요일까지로 아신 거예요. 애들 보고 ‘목요일까지 비워’ 하셔서 거의 다 비웠는데 몇 명 안 비운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야자 시간이었는데 거의 다 보충 가서 다 없었거든요. 반에 한 5명 남아 있고 그랬는데, 딱 들어왔는데 짐이 안 빠져 있으니까 다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진짜 말 없이. 노트북도 버리고 심지어 생리대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있던 애들 놀라서 애들이 다시 제 자리 돌려주고 이랬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말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학교 왔냐?’ 이러면서 진짜 담임쌤 욕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괜찮은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 다른 선생님에게나 본인에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일단 선생님한테는 말을 잘 안 하죠.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힘이 세시니까. 그래서 학생들끼리 수근수근대면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 교실에서 되게 욱 많이 먹고 있지?’ 이러시고. 근데 딱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쌤들도 다 알고는 있는데 굳이 막 사과는 안 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학교생활 통틀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인권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없었어요. 대부분 이래서 이렇다 변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갔어요.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방식이나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일단 안 좋은 쪽으로 기억이 나는 건 영상 보는 거. 항상 영상 트는데 다들 보지도 않고 자거나 자기 공부하거나 그러고 옆 반은 아예 안 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썼던 영상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영상 아니면 가끔 강의 이거여서 영상은 일단 안 보고 강의는 대부분 자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커다란 공간에서 다수가 보니까 몇 명 자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영상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한 사람이 다수한테 설명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는 별로 다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좋게 기억이 나고.

다른 흡연 예방 교육 이런 거는 각반으로 와서 많이 하거든요, 강사님들이. 근데 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번 불러서 커다란 공간에

서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은 2학년 아니면 1, 2학년 해서.

사실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일단 작년에 한 번 했던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잘 안 나요. 연말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영상으로 대충 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열심히 듣는 편이긴 한데 강의하면 사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길수록.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유익하니까 듣자’ 이런 느낌이지 재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듣고 원론적인 얘기를 주로 하셨거든요. 사례는 적었어요. 학생 인권이란 무엇인가 해서 어떤 권리가 있고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게 있고 그런 거니까.

학교에 생활규정이 있나요?

네 있어요. 기숙사랑 학교랑 나뉘어 있어요. 매년 개정위원회 열어서 바뀌는 건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기숙사 규정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거는 학생들한테 뭔가 고지가 안 갔었어요. 방학 때 이루어진 일이라 나중에 생겼다는 거 알았거든요. 다른 애들도 아마 모를 걸요? 퇴사의 피해자가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갑자기 퇴사 규정이 없어졌다 그래서 애들이 뭐가 있었구나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퇴사했거든요. 12시 넘어서 떠들면 퇴사, 밤에 뭐 먹다 걸리면 퇴사, 샤워실에서 자면 퇴사. 무조건 다 퇴사를 때려서. 멀리서는 광주 이런 데서 오는데 퇴사당하면 진짜 안 되잖아

요. 애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데?’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없어지고 피켓 드는 거, 점심 저녁 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소등하고 떠들지 맙시다’ 이런 거 들고 있기로 바뀌어서 애들 사이에서 ‘교육청에서 감사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했어요.

학생들이 새로 생긴 기숙사 규정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런 거 소통이 잘 안 돼요. 학생들이랑 교사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올해 생활 규정 바뀌었거든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보통 생활 규정이 많이 바뀌면 어떤 게 사라졌는지 알려줘야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염색 안 됐는데 염색(규정)이 사라졌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개정된 내용을 어떻게 알려줬냐면, 사라진 부분을 알려준 게 아니라 여전히 지켜야 되는 부분을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이미 개정 전후표를 봐서 뭐가 바뀌었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봤는데도 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이런 게 써 있으니까. 바뀐 내용이 아니고. 포스터 같은 거에다가 몇 가지 간단하게 개정안이 붙여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장황하게 돼 있어서 거의 다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보긴 했었는데.

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나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그 절차에는 설문조사 같은 걸 했다고, 의견 수렴을 했다고 쓰여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아무도 의견 수렴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애들아 우리 뭘 설문조사 같은 거 했어?’ 이랬는데 ‘그걸 언제 했어?’ 다 이런 반응이라.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뀐 규정은 잘 지켜지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바뀐 게 용의복장이었거든요. 작년에는 되게 깐깐했는데 거의 다 삭제되고 그랬거든요. 엄색해도 아무도 안 건들고 그래서 눈에 변화가 보이긴 해요. 옷 같은 것도 짧은 바지 이런 거 작년에 못 입게 했는데 다 괜찮거든요. 근데 엄색 같은 거 규정이랑 상관없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모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거 읽어보니까 이상한 말이 많았거든요. 모호한. 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았고. 기억이 하나 있는데 후반부에 퇴학 처분을 받는 거의 예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교권을 모독한 자는 퇴사함’이 있더라고요 올해 거 바뀐 거 보니까 그것도 사라졌더라고요.

학교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권리가 있나요?

저희는 교복도 안 입고 복장(규정)도 거의 다 사라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안 걷고 물품 압수도 안 해요. 원래 작년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학생 자치가 잘 안 돼요.

애초에 학생회랑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이랑 학교 돌아가는 거랑 잘 정보 교환이 잘 안 돼요. 일단 학급 회의는 안 하고. 중학교에는 각반 실장이 곧 학생회로 들어갔었는데 고등학교는 실장들이랑 그 다음에 학생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실장이 각자 학급 회의를 이끌어서 나온 안건이 다 학생회로 다 모아졌는데, 고등학교는 학급회의도 안 하고 실장도 학생회에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각반에서 나오는 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방안을 모색했는데 체계가 없으니까 학생회에서 스스로 의견 수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학생회 자체도 일이 있으면 모이는 거지 정기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학생 자치니까 자치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들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간섭이 정말 많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치가 아니라 통보 같은 느낌으로. 항상. 통보도 사실 제대로 안 해주고, 회의 같은 것도 교사 권위로 억누르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의 간섭이 많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자치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난 건데, 결정이 난 걸 선생님한테 들고 가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알았어. 해’, ‘이거는 바꿔야겠다’ 항상 허락을 받는 느낌으로 돼서 정말로 저희 결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닌데 회의에 들어오셔서 다 끄고 말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들으시다가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어’. 설명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정말 안 되는 경우라기보다는 ‘선생님들끼리 불편하니까’, 복잡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저희가 야자를 밤 11시까지 하거든요. 야자가 두 개 타임이 있어요. 야자 1이 있고 야자 2가 있는데 야자 2가 9시부터 11시까지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회장이 공약으로 그 야자 2를 기숙사에서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터지기 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교사 쪽에서 막았던 거예요. 지금 그 공약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시간도 바꾸고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회장 부회장 출마할 때 공약을 내걸잖아요. 근데 그것도 출마하기 전에 안 되는 거 다 잘라버리고 허락 말고 이거 괜찮냐고 (물어봐요).

학교 안에서 그런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공적인 루트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정도 일단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불만 표출하고 어쩌다가 학생회에 들어가면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안되고.

제가 학생인권부잖아요. 거기서 조금 시도하는 정도 말고는 없어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무논리를 펼치실 때 같이 가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이었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일단 카톡 플러스 친구 그런 것을 개설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내년 규정개정안이 나올 즈음에 토론회를 열어서 그 토론회에서 나온 학생들 주장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생활 규정을 주제로 삼으니까 조사도 하고 주장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노렸습니다.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올 건데 제가 원했던 만큼 대

신 잘 해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일단 계획안을 자세히 써놔서 그거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단 작게는 학교 관리자 집단하고, 학부모분들도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견 같은 거 넣어봤는데 다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감. 교육감한테 직접 건의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 있는데 다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휠체어 같은 거 타면 계단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더라고요. 의무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 말고 외부에서도 압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 집단의 힘이 아직은 약하니까 저희 스스로 해 내기에는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공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교사라는 지위? 교사를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권위, 권력 같은 게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지금은 사실 완전 수직적이잖아요. 그게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생은 통제받고 교사는 통제하는 인식이 잘못 흘러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잡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교 안에서 토론이라고 하면 거의 다 생기부 쓰려고 하는 토론이 대부분이고 정말 이런 시급한 내용은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관련한 정책이 바뀐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교권이랑 학생인권이랑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의무를 먼저 다 해야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로 ‘의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권리를 주냐.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개정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 참여 위원회 그거 학생의회로 바꾸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학생의회라고 통쳐버리면 인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할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진짜로 인권이라는 주제로 모인 거였는데 의회라고 하면 그게 많이 퇴색되잖아요. 보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도 바뀌는 것 같던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름님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으세요?

없는 것보다는 되게 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학생 인권센터에서 체크리스트 같은 거 보내서 생활 규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랑 있어야 되는 내용 이런 걸 다 체크하게 해봤더라고요. 그런 거를 검사도 톡톡히 해주고 하니까 확실히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학생인권조례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 깜빡했거든요. 심지어 사립이라서. 그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걸 이해하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된다는 느낌.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알고 있어도 학교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쳐도 스스로 알고 있고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름님께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 없었으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학교에서 추억이라고 해봤자 정말 학교와 관련됐다기보다는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관련된 추억이라서. 학교 떠날까 고민할 때도 다른 거 고민 안 하고 친구들 못 보는 거 그거 딱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남아 있게 하는 연결고리가 친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친구 빼고 구리다.

담는 글

그들의 목소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이 과도하다는 시대에
기록되지 않은 인권의 목소리를 담자.”

2021년, 단체로 전달되었던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문제들, 학생인권활동과들과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한 뒤에 남는 고민들이 우리를 이번 인터뷰에 나서게 했다. 전북교육청은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그 자료들만으로는 통계에 담기지 않는, 숫자들에 가려진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없었다. 질적 조사가 병행되지 않는 수치는 인권을 납작하게 만들고 구체적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그런 활동가들의 고민이 인터뷰 사업이라는 길에 나서게 만들었다.

이번 학생인권 인터뷰에 참여했던 인터뷰이들은 대부분 다른 시기,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중이다. 각자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도 학교에서 각자의 위치와 활동 또한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내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았던 이들도 있다.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인터뷰이도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지 몇 년이 지나 흐릿해진 기억으로 인해 인터뷰가 잘 진행될지 걱정하던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이들이 인터뷰를 신청하고 참여하기까지 그들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기억하고 말했던 것만으로도 의미 있

었다. 그들이 ‘인권침해’라고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학교 내의 권력차이, 눈치 속에 침묵했던 생각을 말하는 과정은 생생했다. 학교 내의 부당한 상황을 기억에서 밀어두고 지내던 삶에서 인터뷰를 통해 다시 자신의 삶의 한 장면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말하는 그때가 인권이 ‘발화’되는 순간이었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의 “인간의 권력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라는 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과 후의 삶의 변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에도 학생인권 보장정책은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2007년 공문을 통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체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령 사담의 인터뷰를 통해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에 입학한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과 폭언의 경험, 중학교에서 동료학생이 겪은 몽둥이 체벌소리가 무서웠던 졸업생 사담의 기억. 2010년 전으로 청소년운동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인권운동이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사담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일어났다. 2011년 광주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진보시민사회단체의 후보 추대를 받았던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조례 제정을 교육청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역시 2011년 6월에 출범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도의회 조례안 부결을 비롯한 우여곡절 끝에 2013년 제정되었지만 교육청

은 조례 제정 전부터 학생인권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다. 이는 2014년부터 학내의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중학교를 다니던 케이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뷰이들이 이유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중학교 선도부의 폐지(건욱),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생활규정 개정안내(케이)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여전히 서성이는 학생인권

2013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10년. 조례가 교육정책과 현장에 어느 정도 안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은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 학생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생활규정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에서 개정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 인권보장이 아닌 통제의 관점에서 교사와 학교가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생활지도나 교육이 아닌 교사에 의한 자의적인 간접체벌 혹은 제재(경수, 건욱)도 여전할 뿐만 아니라 담당교사들이 학생자치 조직과 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조차 애기하지 않는 경우(케이)도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립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다. 2017년에 사립고를 입학한 케이와 2022년에 사립중을 입학한 경이의 인터뷰가 그러했다. 두발을 비롯한 신체의 자유(케이), 종교의 자유(경이)가 침해되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 시민권이 유예되는 것과 다름없다. 체벌금지를 비롯한 일부 조항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청의 행정력 역시 교문 앞에 힘을 잃고 있었다. 케이이 경험했던 선
 도부의 문제가 교육청에 의해 개선 사항으로 학교에 전달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특정 교사와 학교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과 인권규범이 퇴색되는 학교의 환경과 구조, 규범에 의한 생
 활지도가 되지 않는 학교의 문화는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교육의 목
 표 역시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이 처한 불균등한 권력관계

일부 교원단체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며 학
 생인권조례에 의해 교사 다수가 교육청의 조사 대상으로 소환된다
 고 강변하고, 교육청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관련 통계자료
 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학교 안에서 학생이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시대라고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평가를 주고받
 는 관계에 있다는 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소수자성을 드러
 내고 있다. 오히려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내신성적이 대학입시를 결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점에서 학생들의 말하기와 생활은 자유
 롭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케이, 건욱) 학생인권 보장을 넘어 ‘프
 리’한 학교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불균등한 위치성은 인
 터뷰이(건욱)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그러한 관계성
 에 대한 문제의식은 학교와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터뷰이의 의견으로 나오기도 했다.

요즘 학교는 좋아졌다는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고등학교로 교부되어 교육청의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노동인권교육에 비해 학생인권교육은 조례에 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교육은 매우 형식적이거나 학생들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대다수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제도가 실현되는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지킨다’는 인권교육의 내용(케이)은 공허하게 다가오고,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 자신의 최대한까지 역량을 쏟아야 하는 어려운 점(제희, 산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학생인권보장의 책임 주체인 학교와 교사가 나서지 않는 사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보다는 묵인되거나 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경수, 제희, 산타)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은 과제

이번 인터뷰는 심층조사나 질적연구로 진행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과 청소년의 삶의 목소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사회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과제는 지역 차원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기본 통계조차 왜곡하는 일부 교육계의 주장과 이에 대해 동조하는 교육청의 태도와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학교 안 소수자인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은 축소되거나 다른 조례와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관계의 노동자 등 여타의 학교 구성

원들과 다른 학생의 위치성에 주목하고 기본적 인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인터뷰사업을 닫는 이들이 남기고 싶은 말이다.

인터뷰이를 함께 만나며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준 협력 인터뷰어 들, 인터뷰의 입말이 하나의 기록으로 될 수 있도록 힘써준 녹취작업 담당자들, 무엇보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삶과 경험을 나누어 준 인터뷰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함께 만든 사람들

기획 및 편집

구파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 17개월째 활동 중입니다. 등교부터 야자까지 책상에 엮드려 잠을 자며 매일을 버텨내는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든지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들이 주장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에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인권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서로 연결짓고,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만들자고 말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편집과 디자인을 하는 내내 윤하의 <살별>과 오마마 타카시의 <The Witch from Mercury>를 들으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채민

2010년부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본부 출범 시기를 지나,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맞이할 때까지 많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을 통해 학생인권을 배웠습니다. 성평등, 학생인권, 노동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학교가 되길 바라며 전북지역에서 살고 활동하고 싶습니다.

협력 인터뷰어

김선경

전주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책방 <토닥토닥>을 운영하면서 상담활동과 페미니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아현

지역에서 글을 읽고 씁니다. 2018년 전북일보에 단편소설 “아침대화”가 당선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녹취록

이수경

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던 중 전북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번 사업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화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양함에 이해를 넓혀가면서 어느순간 나 자신의 협소한 이해에 부끄러울 때가 많은 시민입니다. 소리 없이 흩어지는 청소년 당사자의 흩어질 뻔한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운동의 삶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인터뷰 기록집 - 기억하는 우리, 학생인권을 말하다

펴낸 날	2022년 12월 16일
펴낸 곳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
기획 및 편집	구파란, 채민
녹취록	이수경, 정선화
디자인	구파란
인쇄	시우인쇄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2길 7-3 1층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이메일	onespark98@gmail.com
홈페이지	https://www.onespark.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001-04-22561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자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